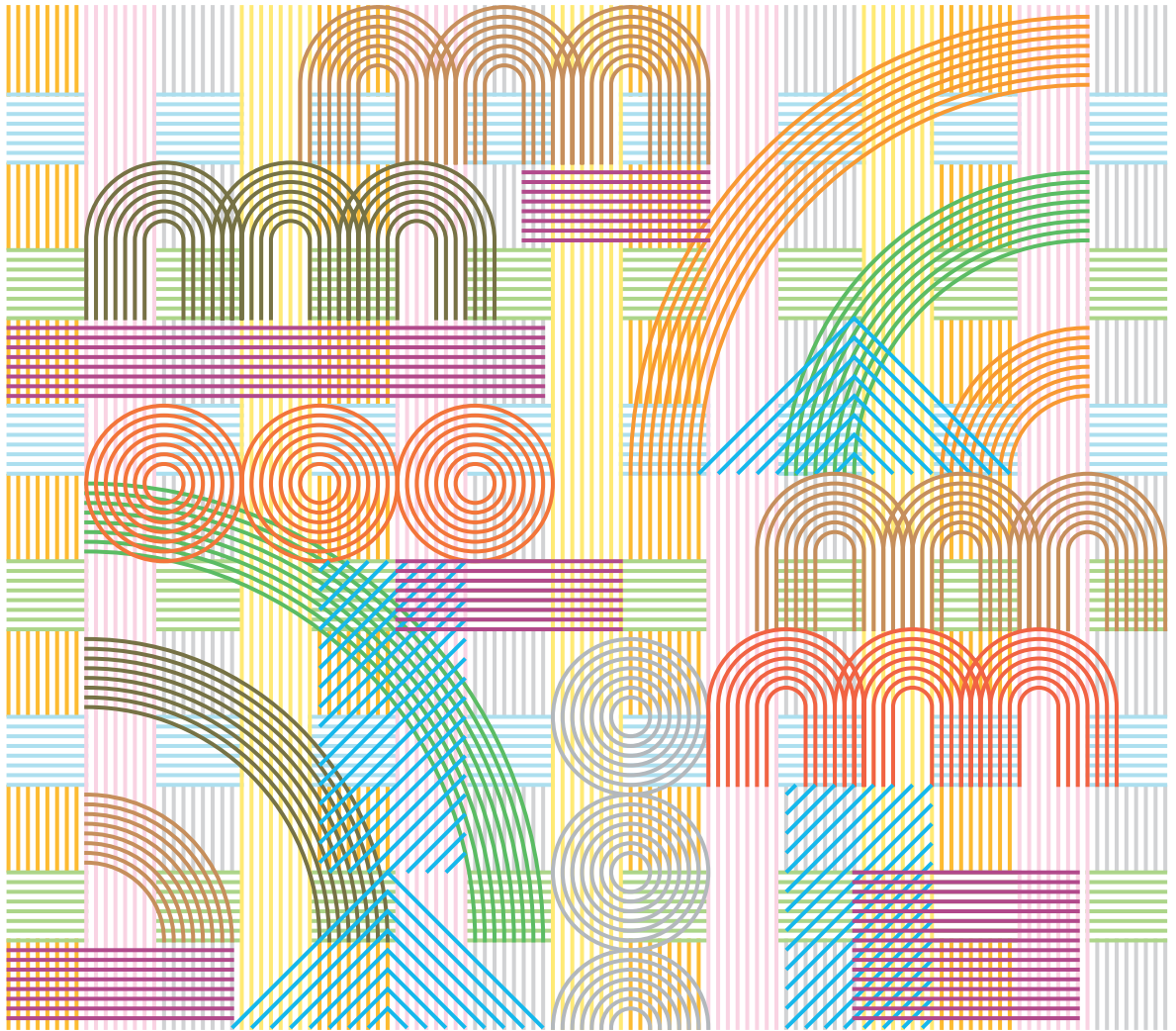


SEOUL
METROPOLITAN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평생학습·서울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17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17

평생학습·서울함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순서

INTRO

- 4 인사말
- 6 Overview
- 8 Organization
- 9 Smiler & Board
- 12 2017 SMILE
- 14 At a glance

1 이랑을 고르고

- 1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혁신 전략 및 정책 개발
- 19 서울형 평생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
- 20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수집·발굴
- 22 시민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지수 개발
- 24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2 씨를 뿌렸습니다

- 28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 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 32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 36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 40 「시민강사」 양성·활동 지원

3 비가 내린 뒤

- 46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 52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 56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4 땅을 북돋우고

- 62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
- 6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 70 문해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

5 마침내 맺은 결실

- 76 모두의학교 운영기반 구축
- 91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OUTRO

- 96 2018 SMILE
- 98 서울은 학교다

인사말

개원 3년,
결실의 시작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문을 연 2015년 3월,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서울 평생교육의 첫 삽을 떴습니다. 돌을 고르고 호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서울 평생학습’의 씨는 그렇게 뿌려졌습니다.

2016년, 싹이 돋았습니다.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뻗어났습니다.

개원 3년째인 2017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은 ‘결실의 해’였습니다. 식구가 늘고 살림도 커졌습니다. 서울 평생학습의 첫 결실들은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치구와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시 평생학습 정책 추진의 중심부에 진입한 것입니다. 서울의 평생학습이 새로운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체계, 단일한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다 촘촘하게, 보다 편하게”는 동네배움터의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내걸고 동네배움터 사업이 시작된 것도 지난해입니다. 주민들이 더 편하고,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동네 근처의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업 첫 해, 15개 자치구에 들어선 45개의 동네배움터는,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꽤 알려진 ‘모두의학교’는 우리 사회에 첫 선을 보인 새로운 개념의 평생학습 배움터입니다. 성별과 나이, 직업과 종교 등 ‘모든’ 것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아주 이색적인 학교입니다. 중학교 건물을 주민 요구를 100% 반영해 아주 색다른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뒤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과 주민이 학습의 객체가 아니라 공부의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최초의 실험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도 평생에 걸친 학습의 의미와 재미를 만끽하게 하자는 ‘평생학습 대중화 사업’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SEOUL
METROPOLITAN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개원 직후부터 매일 발간된 웹진 <다들>은 알찬 내용과 참신한 디자인으로 평생교육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온라인 정기간행물로 뿌리내렸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 ‘다’에게, 정보의 넓은 ‘들’판을 제공하겠다”는 <다들> 편집진의 남다른 의욕은 <다들>을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공용 간행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2016년 한국 사회, 평생학습에 길을 묻다’는 주제로 시작된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는 2017년 10월 열린 제2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생학습 공론장이자 담론의 모색장으로 지위를 굳혔습니다. ‘광장 민주주의, 담장을 넘어 일상으로’라는 제2회 대토론회의 주제는 현 단계 대한민국 평생학습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생학습 실태 조사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의 토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 참여자 실태 조사가 본격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 통계 및 데이터 확보 사업이 결실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7년, 2년 차를 맞은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도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 협조로 ‘서울 평생학습 발전사의 통시적 조감’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평생학습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지수 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도 지난 해였습니다.

자치구 평생학습의 수준은 단체장의 의욕과 결심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자치단체장들을 불러모아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 것도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문해교육 교원 연수 등 다양한 문해 관련 사업이 펼쳐진 것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개원 3년 차인 2017년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게 다양한 결실과 성취를 안겨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런 결실과 성취를 모아 서울 평생학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야무진 각오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8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OVERVIEW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 시민 누구나 평생 동안 서로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우며,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14년 4월 설립 이후, 2015년 3월 서울특별시 출연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여,
폭넓은 민·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평생학습의 새로운 혁신 모델과
참신한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

- 평생교육법 제 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 3장 제 7조(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
- 학습동아리 육성·활동 지원
- 소외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사업 지원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VISION

평생학습으로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

‘스마일 학습도시,
서울 평생학습의 허브(Hub)’

- 1 평생학습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평생학습으로 서울 지역 곳곳을 디자인합니다.
- 2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지역의 삶을 지식으로 구성합니다.
- 3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허브로서의 거버넌스 발굴 · 확대합니다.
- 4 평생학습의 질 제고
서울 평생학습의 지속가능한 모습을 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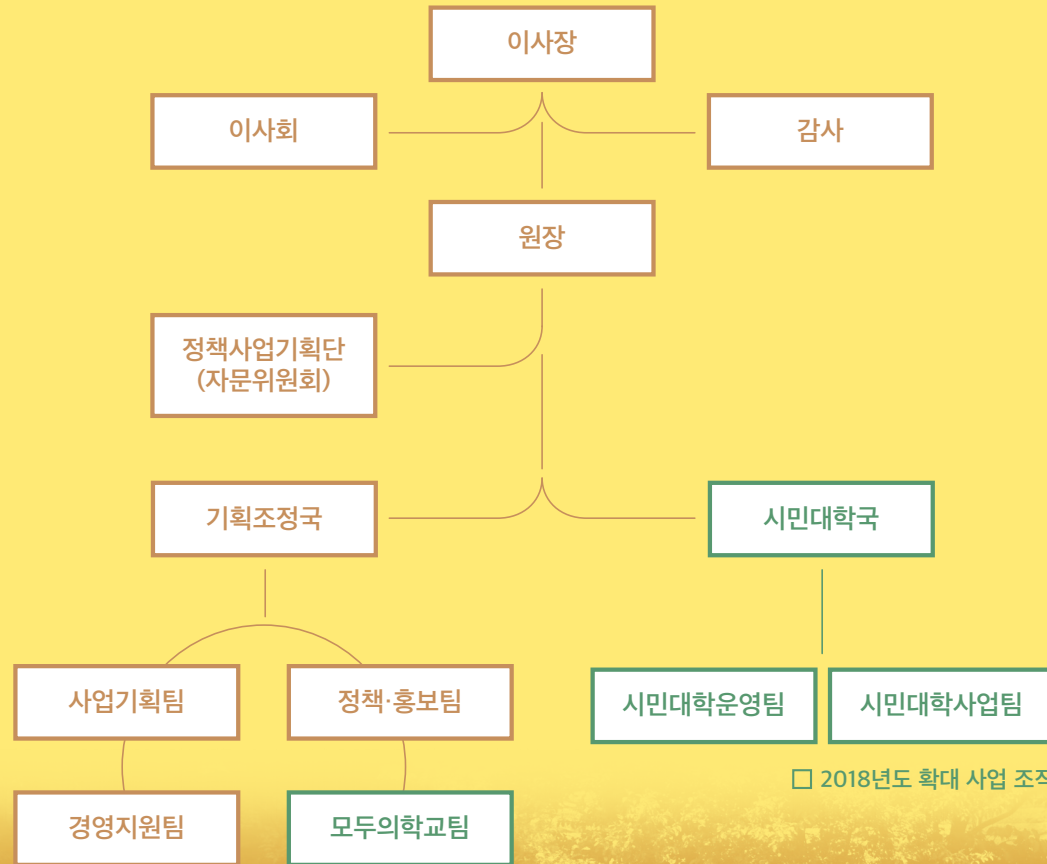
주요 연혁



- 2017. 12. 2국 6팀 체제로 확대 개편
- 2017. 10. 모두의학교 개관식 개최
- 2016. 08. 모두의학교 운영 고유사무로 이관
- 2015. 05. 1국 3팀 체제로 개편
- 2015. 04. 마포구 도화동(공덕)으로 확장 이전
- 2015. 03. 독립 재단법인으로 출범, 제 1대 김영철 원장 취임
- 2014. 04.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개원
- 2013. 10.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계획 수립



ORGANIZATION



□ 2018년도 확대 사업 조직



SMILER

함께하는 사람들

SMILE

원장 김영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을 이끍니다.

기획조정국

국장 이경아

상임 전문위원 김계환

서울형 평생교육과 조직의 미래를
설계하고 조율합니다.

정책사업팀

서울형 평생학습 정책을 고민하고,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팀장 노희숙

대리 김나영

대리 이은주

주임 임지수

대리 민병철

대리 최종성

주임 이아림

홍보·대외협력팀

서울 곳곳에 평생학습 문화를 전파하고,
평생학습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팀장 황미연

주임 김지현

주임 전아림

주임 김혜연

경영지원팀

조직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팀장 박지환

주임 홍슬비

주임 조한준

대리 원지훈

주임 김지혜

주임 유강열

+SMILER

BOARD

함께하는 사람들

2018년도 확대 사업 조직

모두의학교팀

시민 주도의 혁신적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팀장 김혜영 주임 임지희
주임 김은지 주임 정성훈
주임 최고은 주임 김보람
주임 한용덕 주임 안수진
주임 최수희

시민대학국

본부를 비롯한 5개 캠퍼스와 28개의 대학연계 시민대학에서 인문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하고, 다양한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대학국장 김종선

팀장 박미경 팀장 이상훈
대리 최진희 대리 신재민
대리 유현선 대리 김보영
주임 김도현 대리 정영선
주임 김수빈 주임 이명호
주임 신다영 주임 김수민
주임 이혜미 주임 정재은
주임 김민경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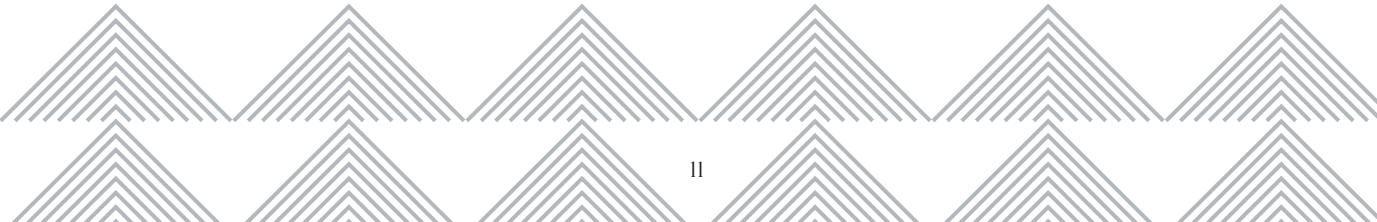


이사회

이름	구분	주요경력
윤여각	이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서울평생교육연합 회장
김영철	상임이사(원장)	(전)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전)시민방송 RTV 이사장
리상섭	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리더십센터 센터장
박영숙	이사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이민선	이사	유니레버코리아 사장, (전)M&M Korea 차장
이희수	이사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정민승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국평생교육학회 기획위원장
최규복	이사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주용태	이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박혜자	이사(당연직)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박대우	이사(당연직)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정 훈	감사(비상임)	안세회계법인 이사, (전)신한회계법입 회계감사
김명주	감사(당연직)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장

(2017년 기준)

함께하는 사람들



2017 SMIL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 평생교육 농사

이랑을 고르고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계획하는 일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 자료에 기반을 둔 현황 조사와 통계 분석에 바탕을 둔 정책의 개발과 연구에 힘썼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서울시 구석구석에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고, 자율학습 모임을 지원하며, 시민강사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싹이 트고 자라나, 훗날 평생교육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비가 내린 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와 바람과 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전개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땅을 복돋우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땅의 힘이 좋아야 합니다. 양질의 콘텐츠로 발을 일구었고, 평생교육 기관 컨설팅 및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땅의 힘을 복돋았습니다.

마침내 맺은 결실

함께 농사짓고 함께 수확하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간 설계에서부터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이 참여한 모두의학교가 개관식을 하고, 혁신을 이룰 준비를 끝냈습니다.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혁신기획단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혁신 정책과제

3 개

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
및 이슈브리프 발간

6 회

평생학습 아카이브 자료 발굴·수집

100 건

서울형 평생학습 개발 연구

6 회

동단위 생활권역 내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45 개소

1인 1자율학습모임
동아리 활동 지원

51 개

시민 **604** 명 참여

지자체 단위 서울 시민강사
양성을 통한 활동

159 명

평생학습 전문매거진
웹진 <다들> 발행

13 회, 구독자 **5,789** 명

국제행사 규모의 '제2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시민 **660** 명 참여

시민참여 평생학습
TED형 강연회 개최

6 회, **1,710** 명 참석

평생학습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232 회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4회) 및
다층적 협의회(5회) 개최

총 **9** 회, **144** 명 참여

지역 및 기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지원 확대

'16년 **10** 개 기관 → '17년 **20** 개 기관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향상 연수 확대

'16년 **173** 명 참여 → '17년 **512** 명 참여

문해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중등 **30** 명 양성

청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시범 운영

2 회

모두의학교 시민참여형 학습공간 조성

모두의학교 온라인 플랫폼 구축

Facebook 팔로워 **3,602** 명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모델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모두의학교 개원

시민 **805** 명 참석

평생교육 주체와 협력을 통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모델 발굴 및 시범 운영

9 개 프로그램 개발

AT A GLANCE

3월

- 1인 1자율학습모임 선정기관 워크숍 개최
- 제 1차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개최

4월

- 시민강사 양성 사업 착수 및 워크숍 개최



5월

- 서울 평생학습 기록물 전문가 협의체 1차 정례회의 개최
-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집행위원회 발족
- 제3기 시민기자단 발대식



6월

-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위한 자치구 평생교육 통계 담당자 연수

- 제 2차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개최
- 제 1차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및 온라인 교재 개발



7월

-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관계자 워크숍
- 중학과정 문해교원 양성 연수 및 보수교육
-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8월

- 제 3차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개최

9월

- 2017년 혁신기획단 1차 정례회의 개최
- 평생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마련
- 평생학습 아카이브 전시
- 동네배움터 배움 플래너 성장 워크숍 개최
- 제 2회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서울은 학교다” 1차 개최
- 시민 참여형 학습공간 “모두의학교” 공사 완료
- 제 2차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개최

10월



-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사업 대상별 컨설팅 운영
-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서울은 학교다” 2차 개최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시낭송회 개최
- “모두의학교” 개관식

11월



-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서울은 학교다” 3차 개최
-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서울은 학교다” 4차 개최
- 제 4차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개최
- 제 3차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사업영역

- 서울시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 서울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12월



- 2017년 혁신기획단 2차 정례회의 개최
- 서울 평생학습 기록물 전문가 협의체 2차 정례회의 개최
-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총괄 평가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의 날 연계 1인1자율학습모임 휴먼라이브러리 개최
- 시민강사 양성 사업 성과 공유 및 개선을 위한 총괄평가회 개최
- 평생학습 전문정보 웹진 <다들> 편집단행본 무크지 2호 발행
-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서울은 학교다” 5차 개최
-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서울은 학교다” 6차 개최
- 문해학습자의 창의체험활동을 위한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 성인문해교육 자문회의 개최

1

이랑을 고르고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계획하는 일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 자료에 기반을 둔 현황 조사와 통계 분석에
바탕을 둔 정책의 개발과 연구에 힘썼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혁신 전략 및 정책 개발

서울형 평생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수집·발굴

시민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지수 개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누적이 힘”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
평생교육 전문 웹진 <다들> 1월 개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혁신 전략 및 정책 개발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현황 분석을 근거로 한 철저한 계획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시대적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설립 직후부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혁신기획단’을 구성하고,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실무그룹이 주축이 되어, 3개의 분과로 혁신기획단을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① 빅데이터를 분석한 시민주도 평생학습 주제 발굴 ② 서울형 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융복합 혁신 프로그램 개발 ③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소통 전략 수립 등을 수행했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평생교육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열린 주제를 놓고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며, 공동의 목표를 둔 성과물을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융복합적 접근과 빛나는 통찰력으로 평생학습의 앞날을 조망하고 적합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민병철 대리/정책사업팀

사업 목적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종합계획」의 추진 및 당면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혁신 전략 수립

사업기간 2017.1월 ~ 12월

추진 경과

- 1 2017년 혁신기획단 및 연구분과 구성: 2017. 6월
- 2 혁신기획단 정례회의 개최: 2017. 9월, 12월
- 3 혁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분과 운영 및 보고서 작성 : ~2017.12월

사업 내용

- 1 서울 시민의 역사성, 생활시간, 소비생활 등을 분석하여 키워드로 서울코드 도출
- 2 서울형 융복합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모두의학교’ 운영 방향성 논의
- 3 서울특별시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활용 사례 분석,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브랜딩, 홍보 방향과 전략 수립

사업 성과

연구 분과별 보고서 각 1종씩 총 3종 개발

- 1 시민 주도 평생학습 주제 발굴
- 2 서울형 융복합 혁신 프로그램 개발 분과 보고서
- 3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소통 전략 수립

서울형 평생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연구

‘양보다는 질’이라는 말이 있지요?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내 평생교육 서비스 규모는 급증했으나 평생교육 서비스 간 수준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양적인 증가에 걸맞은 품질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생교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해 보고자, 우리 진흥원은 평생교육 기관의 인프라,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과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품질관리’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처음 다루는 연구 주제입니다. 우리는 ‘질 높은 교육’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것이 무엇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서로 다른 답을 할 것입니다. ‘품질’은 눈에 보이는 물건의 수준을 일컬을 때 흔히 쓰는 말이지요.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문적 개념으로 정의되지도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착수단계부터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구진 사이에서 열띤 논쟁도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우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해 주신 명지전문대 권두승 교수님 등 연구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성실한 도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민병철 대리/정책사업팀

사업 목적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통한 수준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수립

사업기간 2017.1월 ~ 12월

추진 경과

- 1 품질관리 연구계획 수립 및 외부 연구진 구성: 2017. 6월
- 2 교육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선행연구 및 유관분야 사례 분석: 2017. 7~8월
- 3 평생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안) 마련: 2017. 9월
- 4 평생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우수사례 조사·분석: 2017. 10~12월

사업 내용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품질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개념 정의, 사례 수집 및 분석)
-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품질관리 현황 및 사례 분석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
-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

연구보고서 1종 및 품질관리 매뉴얼 1종 개발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수집·발굴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산재된 평생학습 기록물과 시민의 학습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평생학습 영역의 다양한 사업과 연구물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일상 속 학습 스토리를 발굴하여 더 나은 내일의 서울 평생학습을 만들어 갑니다.



[수집자료] 한국사회교육협회 창립 세미나



마이스터 성장 스토리



[수집자료] 흥사단 민주시민교육 금요개척자 강좌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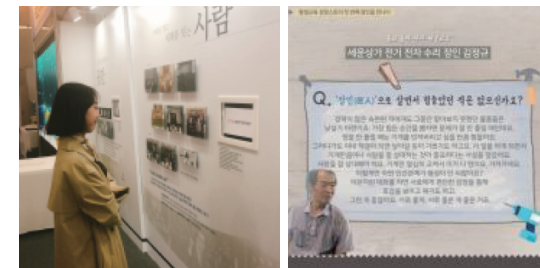
서울 평생학습에 관한 연구·기록·사례의 체계적 수집 및 축적을 통한 평생학습 실천영역에서의 기록물 공유 체계 마련

사업 대상

일반 시민 및 평생교육 관계자

사업 내용

- 1 시민학습 아카이브 기획전시:
2017.9월, 상암월드컵 평화광장
- 2 평생학습 기록물 수집 및 발굴
 - 평생학습 특성화 기록물 수집 공모사업 3개 기관
 - 세운상가 장인의 일터학습 스토리 발굴:
2017.7월 ~ 10월
 - 대한민국 기술명장 성장 스토리 발굴:
2017.10월 ~ 12월
- 3 평생학습 기록물 전문가 협의체 운영으로 수집의 양적 확대와 주제의 다변화



[공유] 사진 아카이브 전시

[공유] 세운 마이스터 스토리

오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아카이브 사업이지만,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서울 평생학습 축제’에서 먼저 사진 아카이브 전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대적 사회교육의 시작인 서울 YMCA 사진기록물, 전쟁 이후의 피폐한 사회에서 선거와 민주주의 등에 대한 학습의 장을 펼쳤던 흥사단의 금요개척자 강좌, 서울지역 내에서 공공영역 평생교육의 시작점이 되었던 마포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집중해서 조명하는 전시였습니다.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학습 스토리 발굴을 위하여 세운장인, 대한민국 기술명장, 생활의 달인을 대상으로 일터에서의 학습 스토리를 발굴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학습의 일면을 차곡차곡 기록하자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 서울지역 평생교육 기관에서 수집해놓은 다양한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특성화 기록물>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평생학습을 함께하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서울의 자산이 되길 바랍니다.

◆ 김나영 대리/정책사업팀

시민력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지수 개발

평생학습지수는 지금까지의 서울 평생학습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한 정책 기제로 개발되었습니다.

2016년 착수된 평생학습지수 1차년도 개발 연구(사업수행: 서울연구원 / 연구명: 서울 시민의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연구)는 시민력과 시민역량에 대한 개념 및 용어 검토, 국내·외 평생학습 관련 지수의 사례 분석,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와 지표체계 구성, 지표 가중치 설정 및 평생학습지수 산식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1차적인 서울형 평생학습지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2017년 2차년도 연구(사업수행: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명: 서울형 평생학습지수 개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에 기반하여, 서울시 전체 지수에 해당하는 시계열 방식의 ‘하나의 종합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평생학습지수를 개발하는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년도 연구가 선행연구 검토, 지표체계 구성, 지수 산식 개발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의 개발이었다면, 2차년도 연구는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유와 확산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시민의 지속적 생애능력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정책의 중·장기 추진과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 지표로서 서울형 평생학습지수 개발

사업기간 2017.1월 ~ 12월

추진 경과

- 1 ‘평생학습지수 개발 2차년도 연구’ 수행기관 선정 및 연구 착수: 2017.7월 ~ 8월
- 2 평생학습지수 모형 수정(안) 마련 : 2017.9월
 - 기존 지수모형을 지원/활동/성과 영역별로 재구성, 자치구 수준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부지표 추가·보완
- 3 평생학습지수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2017.9월 ~ 10월
- 4 서울형 평생학습지수 개발 보고서 작성: 2017. 12월

사업 내용

- 1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 1차년도 연구에서 부족했던 평생교육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2 지수(안)의 타당도 제고 및 활용방안 마련
 - 수렴 의견 기반, 지수모형 수정 및 누락 지표 보완
 - 서울특별시 전체 및 자치구 단위에서 평생학습 지수의 활용방안 마련

- 3 지수(안)에 자치구 단위 시범 적용·검토 및 수정
 - '16년 개발된 지수(안)에 자치구 단위 데이터를 시범 적용
 - 지수(안)의 세부지표 수정·보완 및 타당도와 신뢰도 검토
 - 세부 지표별 가중치 설정 및 지표값 산출식 조정
 - 서울특별시 전체 수준 절대 비교를 위한 지수 개발

사업 성과

연구보고서 1종 개발

올해 연구에서는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현장에서 평생학습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현장에서 실제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수치를 만들어주신 중앙대 연구진과 자치구 담당자들,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평생교육학회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민병철 대리/정책사업팀

서울형 평생학습지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사업 운영을 위해
우리 진흥원은 2015년 설립 이후부터 의욕적으로
평생교육 통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는 평생교육
통계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노년층
인구 증대에 따른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을
만65~79세 노년층까지 확대했으며, 조사 규모는
7,238명까지 증대 하였습니다.

서울 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
특별시 평생교육과 우리 진흥원의 평생학습 정
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
습니다. 향후 자치구 및 평생학습 현장에서 데이
터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어, 시민들의 평생학습
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민병철 대리/정책사업팀

사업 목적

서울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실증 자료 구축

사업 기간 2017.6월 ~ 12월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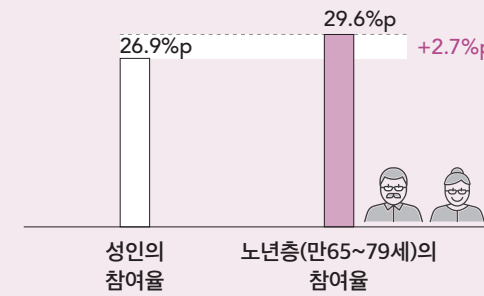
- 1 서울특별시 소재 평생교육법 외 평생교육기관 전수
조사 실시
- 2 만 25~79세 서울 시민 7,000명 대상 표본조사 실시
 - 노년층(만65~79세)까지 조사대상 확대
(2016년 만25~64세 → 2017년 만25~79세)

추진 경과

- 1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를 위한 자치구 평생교육
통계 담당자 연수 : 2017.6월
- 2 평생교육법 외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수행: 2017.
07월 ~ 10월
 - 서울특별시 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교·강사
현황 등 조사
 - 자치구 제출 데이터 수합 및 검증, 재조사 및
자료 수정 요청
- 3 '서울 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수행:
2017.06월 ~ 12월
 - 25개 자치구 별 50개 표집층 7,238명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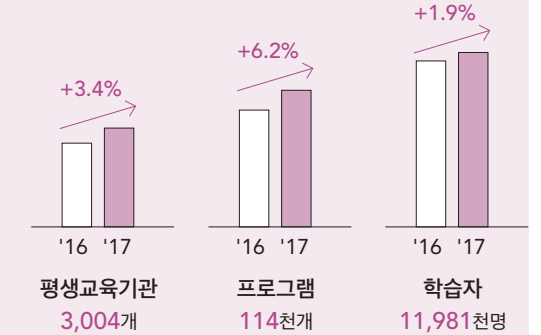
주요 조사 결과

- 1 노년층(만65~79세)인 서울 시민의 참여율 29.6%로
전국 성인의 참여율 26.9%보다 2.7%p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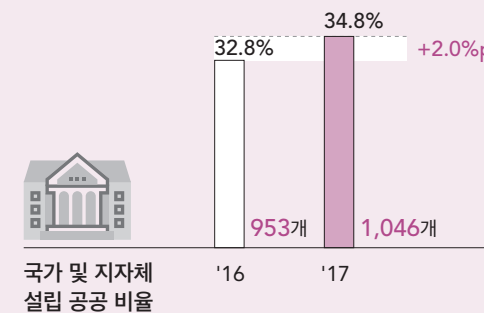
- 2 서울시 평생교육 인프라 개황 :
평생교육기관 3,004개, 프로그램 114천개,
학습자 11,981천명

- 전년 대비, 평생교육기관 3.4%,
프로그램 6.2%, 학습자 1.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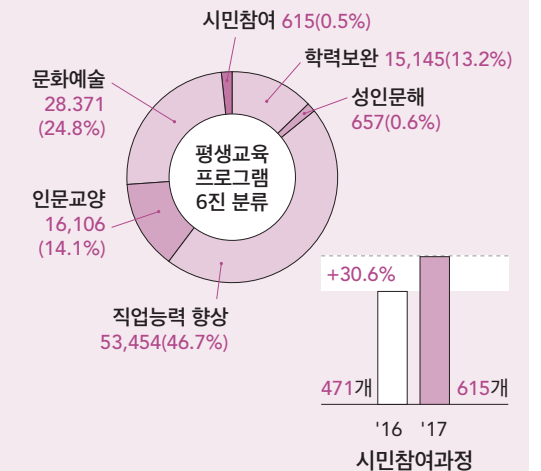
- 3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 국가 및 지자체 설립한
공공 비율 2.0%p 증가

- 공공 평생교육기관 2016년 953개(32.8%)에서
2017년 1,046개(34.8%)로 증가



- 4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에 따르면, 직업능력
향상과정이 46.7%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시민참여과정은 약 30.6% 증가
(471개 → 615개)



2

씨를 뿌렸습니다

서울시 구석구석에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고,
자율학습 모임을 지원하며, 시민강사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싹이 트고 자라나, 훗날 평생교육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 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시민강사」 양성·활동 지원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전 생애를 학습기간으로!
전 국토를 배움터로!”

환경재단 대표 최열

평생교육 전문 웹진 <다들> 4월 배움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 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일상이 스며있는 동네를 정이 넘치는 따뜻한 학교로...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동네배움터 안에서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촘촘한 근거리 평생학습을 지원합니다.

2017년에는 13개 자치구에 45개 동네배움터를 설치·지정하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움플래너 배치, 배움운영위원회 운영, 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은 다양한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로 탈바꿈했고,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주민, 기관·시설(학습공간), 자치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사업 목적

시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동(洞)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기간 2017.4월 ~ 12월

사업 대상 동네배움터 운영 자치구 및 서울 시민

사업 성과

- 1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동네배움터 **45개** 설치 및 지정
- 2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143개 운영, **1,910명** 이수
- 3 평생교육 지원인력 배움플래너 **69명** 배치
- 4 주민참여를 위한 배움운영위원회 위원 **305명** 참여, **203회** 활동
- 5 학습공동체 활동 **2,153명** 참여, **470회** 활동
- 6 참여 학습자 만족도 : **4.51** (5점 만점)



사업 내용

- 1 동네배움터 선정·운영
(**13개** 자치구, 동네배움터 **45개소**)
 -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동네배움터 설치·지정
 -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을 위한 지역 활동가 '배움플래너' 배치
 - 주민 참여를 위한 '배움운영위원회' 운영
 - 학습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개소식, 성과공유회 등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 2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및 확산
 - 동네배움터 현판 및 홍보 리플렛·포스터 각 1종 제작·배포
 - 사업 초기 안착을 위한 착수 협의회 및 역량 강화 워크숍 1회 개최
 -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관계자 워크숍 1회 개최
 - 배움플래너 성장워크숍 2회 개최
 - 사업 대상별 컨설팅 2회 운영
 -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우수사례 현장탐방 3회 운영
 - 사업 추진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 자문회의 2회 운영
 - 사업 총괄 평가회 1회 운영
 - 사업 성과 자료집 1종 제작·배포 등



사업의 차별성

1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 센터의 기반

- 2017년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던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을 '서울형'으로 개편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울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배움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동네배움터 개소식, 학습동아리, 재능기부 활동, 성과공유회, 전시회 등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즉, 동네배움터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서로 협의하고 기획합니다. 또한 학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학습동아리, 재능기부 활동, 학습 마무리 후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회, 전시회, 공연 등 학습공동체 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2 다양한 '유희공간'이 '학습공간'으로 탈바꿈

- 2017년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다양한 '유희공간'을 '학습공간'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주민센터), 자치회관, 마을회관, 마을활력소, 작은도서관, 서점(책방), 마을카페(북카페), 아파트 및 상가 유희공간, 주민 편의공간, 전시관, 갤러리, 극장, 공방, 마을 미디어 시설까지 참으로 다양한 유희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다양한 유희공간의 유형에 따라 사업을 유형화하여 지역 맞춤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사업 운영 모델들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부터 점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 성과 자료집

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배움터, 동네배움터를 통해 '거대한 서울을 위대한 학교로'... 2017년은 동네배움터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이 모여 있는 서울에서 과연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주민 참여 지원 활동(배움운영위원회, 학습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동네배움터 사업은 기관 차원에서 이끌어가기 보다는 주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장(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부터는 주민 참여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 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최종성 대리/정책사업팀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 후기

"동네배움터는 프로페셔널한 누군가가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자 및 운영자, 참여자들이 함께 서로 교감하며 성장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이 곧 '동네배움터'라는 사업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수치 중심의 성과가 아닌 사람이 남는 성과로 집약될 수 있는 사업이었기에 더욱 큰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 안병천 (관악FM라디오 대표)

"동네배움터는 동네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유한 색깔을 가진 독특한 배움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근처에 평생학습관도 있지만, 그와는 다른 방식의 친근한 배움의 과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모셔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의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은희 (공감의 정원 배움운영위원)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서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기관의 특성에
기반하여 평생교육 사업 방향 및 방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지역 현황에 기초한
과제 발굴 및 사업 개발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평생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5년 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컨설팅 수혜
기관 수를 확대하고, 컨설팅 영역을 체계화시키며
사업의 깊이를 더해왔습니다. 또한 지역과 기관이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해 왔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목적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추진 역량 강화

사업 기간 2017.3월 ~ 12월

사업 대상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사업 내용

- 1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자문 및 아이디어 발굴 지원
- 2 기관 특성에 기반한 현안 과제 공유 및 개선 방안 제안

	대상	주제범위
종합 컨설팅	자치구 (비평생 학습도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운영 컨설팅	자치구, 평생교육기관·단체	평생교육 사업 운영과 관련된 특정 분야
추후 컨설팅	'15년, '16년 컨설팅 선정기관	컨설팅을 통한 변화 및 추진 과제 점검

사업 성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0개 기관, 현장컨설팅(총 90회)

종합 컨설팅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컨설팅

기관명	컨설팅 주제
중랑구청	중랑구 평생학습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운영 컨설팅

평생교육 사업 운영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컨설팅

기관명	컨설팅 주제
강동구청	강동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
구로구청	중추기관으로서의 구로구 평생학습관 역할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네트워크 재구조화 및 활성화 방안
금천구청	금천구 1020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 체계 정비 1020 프로젝트* : 10개 동에 각각 20개씩 총 200개의 학습동아리를 조직하는 프로젝트
서초구청	서초구 평생학습관 특화 사업 발굴
용산구청	용산형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용산구청의 실천과제(정책) 우선순위 분석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단 및 발안 모색

추후 컨설팅

컨설팅을 통한 변화 및 추진 과제 점검을 위한 컨설팅

기관명	대상 연도	컨설팅 주제
강북구청	2016	강북구 중고령자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방안
광진구청	2015	광진구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2016	광진구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방안
도봉구청	2016	도봉구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동작구청	2015	동작구 평생학습관 신규 개관에 따른 운영 방안
서초구청	2016	서초구 평생학습도시 계획을 위한 기초 방안 수립
영등포구청	2016	영등포구 평생교육 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특성·브랜드화
은평구청	2015	은평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네트워크 재구조화
종로구청	2015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중구청	2016	중구형 평생학습 추진체계 모델 구축
중랑구청	2016	중랑구 평생학습관 비전과 특성화 사업 발굴 및 학습동아리 육성 방안
서울시교육청 고덕평생학습관	2016	평생학습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16	평생교육 실태 진단 및 발전 방안 마련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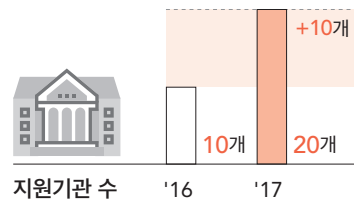


사업의 차별성

- 1 지원 유형 다양화를 통한 질적 제고
(2016년 운영 컨설팅 → 2017년 종합/운영/추후 컨설팅으로 확대 시행)



- 2 지원기관 수 증가를 통한 지원의 양적 확대
(2016년 10개 → 2017년 20개)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 후기

“이번 종합 컨설팅을 통해 얻은 가장 좋은 점은 평생학습도시 우리 자치구의 비전과 체계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한눈에 보이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 종합 컨설팅 대상기관 담당자

“아하,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였군요.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같이 가야하는데 마음이 급했어요.”

- 추후 컨설팅 대상기관 관계자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컨설팅 지원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에는 기관별 평생교육 과제 수준을 고려하여 컨설팅 지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비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된 종합 컨설팅을 통해 중랑구의 평생학습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를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중랑구민들과 공유하고, 기관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다른 유형인 추후 컨설팅은 2015-16년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한 기관의 변화와 추진 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전에 기관 컨설팅을 담당했던 컨설턴트와 함께 기관을 방문하여, 컨설팅 종료 후 1~2년 동안 기관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였고, 추진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쳤는지, 그리고 현재 당면한 이슈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기관별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담당자의 노력, 컨설팅을 통한 긍정적인 현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아림 주임 / 정책사업팀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201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사업은 자발적인 학습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학습 문화를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는 ‘학습+실천형’ 학습모임을 발굴·지원하고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학습 및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에 운영되어 온 학습모임 활동비 지원, 휴먼 라이브러리 개최 외에도 개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기 공모전 개최, 운영 매뉴얼 제작 등 학습모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이 더욱 고려되고, 시도되었습니다.

특히, 개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학습모임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여 학습모임의 자립과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

학습모임 활동 지원을 통한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

사업 기간 2017.3월 ~ 12월

사업 대상 자율학습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시민

사업 내용

- 1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의 공동사업으로 심화학습 및 자원봉사활동 체계적 지원
- 2 학습모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모임 (학습동아리) 컨설팅 운영
- 3 학습모임 활성화 및 자발적 학습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수기 공모전 개최
- 4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동아리 운영 매뉴얼 제작

사업 성과

- 1 자율학습소모임 **51**개 지원, 총 **604**명 참여
- 2 학습동아리 개별 컨설팅 총 **60**회 진행
- 3 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즐기는 성과 공유회 총 **5**회 개최(자치구별 **1**회)
- 4 학습모임 학습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원봉사활동 **389**회 실시
- 5 학습모임 활동 수기공모전 **1**회 개최 (**10**개 작품 선정), 운영 매뉴얼 **1**종 제작

사업의 차별성

- 1 학습모임 맞춤형 컨설팅 운영(개별 컨설팅 60회)을 통한 학습자 성장 지원 및 지속적인 조직 유지를 위해 동력 부여
- 2 자기주도적 학습모임 활동을 위한 핵심 정보 및 워크시트를 제공하는 ‘학습동아리 운영 매뉴얼’ 제작을 통해 학습자·사업 관계자 대상 유용한 가이드 제공
- 3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공동사업 운영으로 자율학습모임의 심화학습 및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



2017년은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단편적인 학습모임 사업에서 벗어나 활동 추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학습모임 컨설팅, 수기 공모전,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학습모임 컨설팅은 학습모임이 지니고 있는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일회성 컨설팅으로는 학습동아리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워 아쉬웠습니다. 향후 학습모임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학습모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평생학습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평생학습의 즐거움! 나와 너, 우리의 삶을 바꾸다”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0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수기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아주 소소한 학습활동이 자신과 지역 내 변화를 가져오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접함으로써 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학습모임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배움과 나눔이 함께하는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은주 대리 / 정책사업팀



학습동아리 컨설팅 우수사례 : 금천구 '함성소리' 동아리

컨설팅 내용

- 1 제한된 회원 외에 신규 멤버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 2 조합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 3 장기 미 참여자 및 직업이 있는 회원들을 위한 적극 참여 방법 찾아보기

컨설팅을 통한 신규회원 영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결과 실행 계획

- 리더십 심화 과정뿐 아니라 기타 구청 타 강좌 수강생들에게 홍보
- 금천구 관내 동아리 네트워킹 파티 등을 통해 동아리 홍보
- 함성소리 안에 인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관내 동아리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인재 교류
- 고유등록증 발급 : 2018년 위탁 가능한 사업 공모
- 매월 둘째 주 모임은 저녁 시간대, 사업 관련 번개 모임 등은 주말 모임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 후기

때로는 “나 역시 아픈 몸인데 누구를 위해 봉사하며 웃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의 채널을 바꾸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르신을 위한 봉사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진다.

누군가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면서 나 또한 행복한 것 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이렇듯 그 무엇보다 더할 수 없는 행복이 웃음행복단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동아리를 찾는다.

- 「2017 학습동아리 활동 수기공모전 대상작」중에서

시민강사 양성·활동 지원

평생학습에서는 시민 누구나 학습자이기도 하면서 배움을 전하는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시민강사 양성·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이 학습한 결과를 지역사회 활동 참여, 재능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도록 ‘시민강사’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7개 자치구에 시민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총 159명의 시민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자격증 위주의 단순 학습형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업운영과 학습형 일자리 연계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한 전문적인 영역(돌봄교실)의 학습형 일자리를 통해 학습자들의 사회 진출에 기여했으며, 진로교육, 인턴활동 매칭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학습 성과를 지역사회 활동, 재능기부 등으로 나누는 시민강사를 양성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동의 선순환 체제 구축

사업 기간 2017.4월 ~ 12월

사업 대상 7개 자치구 및 서울 시민·사업 기간

사업 내용

- 1 시민강사 양성 프로그램 공모·운영**
 - 지역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시민강사 양성 프로그램 7개 지원
 -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한 선정기관 워크숍 1회 개최
 - 사업 결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총괄 평가회 1회 개최
- 2 시민강사 활동 지원 체제 구축**
 - 시민강사 활동 경로 안내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연계)
 - 시민강사 활동처 연계를 위한 인턴활동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MOU 체결을 통해 43개 학교 초등 돌봄교실 연계)

사업 성과

- 1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강사 **159명** 양성
- 2 시민강사 활동 경로 안내를 위한 진로교육 **14회** 운영
- 3 시민강사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43개**교 학교 연계 인턴활동 실시
- 4 시민강사 홍보 및 활동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144회**

사업의 차별성

- 1 전문적인 시민강사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 2017년 시민강사 양성·활동 지원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시민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형 일자리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돌봄 교실(진로교육, 인턴활동),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영역에서 협력하였고,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는 진로교육 시 시민강사들의 협동조합 활동 영역에서 함께하였습니다. 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주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 각 자치구별로는 자치구 내 협력할 수 있는 교육기관·시설들과 연계하여 시민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습활동, 시민강사 배치 등 다방면에서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였습니다.

2 시민강사의 진로교육, 인턴활동 지원

- 2015년, 2016년에 추진된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양성된 시민강사는 기본교육 시수 부족, 심화교육 부재 등으로 인해 강사로서 전문성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시민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 이외에 별도의 진로교육(4시간), 인턴활동(8시간) 시수를 반영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 진로교육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기초수준의 협동조합 이해 및 설립단계 교육(3시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강사 이해(1시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턴활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43개 학교와 연계하여 시민강사들의 예비 활동처를 매칭하고, 실습활동을 해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평생교육 현장에서 강사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강사는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와 소통하는 소통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 때로는 학습자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시민을 특정 기간 내에 강사로 양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많은 준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교육청과 협동조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강사로서의 전문 역량을 조금이라도 향상 시켜드리기 위해 진로교육, 인턴활동 등을 지원하였

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많은 추가 교육과 워크숍, 동아리모임 등을 통해 학습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열정과 노력으로 시민강사 양성 과정을 무사히 이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체감했습니다. 내가 강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해결하며 시민강사로 거듭난 학습자 한분 한분이 이제는 서울지역 평생교육의 리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최종성 대리 / 정책사업팀

3

비가 내린 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와 바람과 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전개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같이 배워야
실천한다.
실천해야 배움이 커진다.”

성공회대 교수 김동춘
평생교육 전문 웹진 <다들> 8월 배움

제2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광장 민주주의, 담장을 넘어 일상으로’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한 해 동안 서울 평생학습의 여러 모습들을 다양한 매거진 형태로 시민에게 전합니다. 이제는 '다들' 널리 알려진 평생학습 전문 웹진 <다들>, 한해 <다들>의 내용을 재구성해 엮은 <다들> 무크지, 평생학습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이슈브리프>를 펴냈습니다.

시민이 직접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우리 곁의 평생학습 이야기를 발굴하는 '스마일 프레스' 25명의 시민기자단도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http://webzine.smile.seoul.kr>

<다들>의 뜻?

남거나 빠진 것 없이 모두를 뜻하는 '다'와 편편하게 넓게 트인 땅을 의미하는 '들'의 합성어. 서울 시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들은 [깨움], [배움], [채움], [다움]의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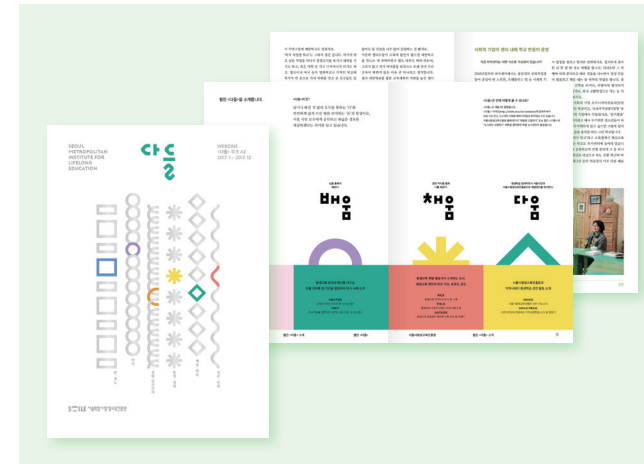
서울 평생학습 전문 정보 및 이슈 발굴·확산을 통해 체계적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사업 대상 일반 시민 및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사업 기간 2017.01월 ~ 12월

사업 내용

- 1 평생학습 전문 웹진 <다들> 제작 및 발간 : 정례호 **12**호, 특별호 **1**호
- 2 웹진 <다들> 기사 수 : **106**건
- 3 웹진 <다들> 무크지 vol. 2 발간 : **1**종
- 4 웹진 창간 2주년 기념 멘토 강연회'모든 이가 스승이고 모든 곳이 학교다' 개최
- 5 서울 평생학습 이슈 분석 <이슈브리프> 발간 : **6**종
- 6 '16년도 연차보고서 <평생학습·서울함> 발간 : **1**종
- 7 지역 평생학습 소식 발굴·확산을 위한 시민기자단 운영 : **25**명 선발, **147**건 기사 발굴
- 8 시민기자 전문 교육 '시민기자 아카데미' 개최 : 총 **3**회



2017 <다들> 무크지 vol. 2

<다들>은 일상 속 다양한 배움의 모습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멘토'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학습의 현상과 이슈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이슈브리프>는 인포그래픽 형태로 꾸며져 보다 알기 쉽게 시민에게 다가갑니다.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하는 시민기자단은 뉴스가 생성되는 곳을 직접 견학해봅니다. 지난해에는 YTN 상암동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다들>이 만난 우리 시대의 멘토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권지웅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최열
환경재단 대표



김용택
시인



서재경
남도학숙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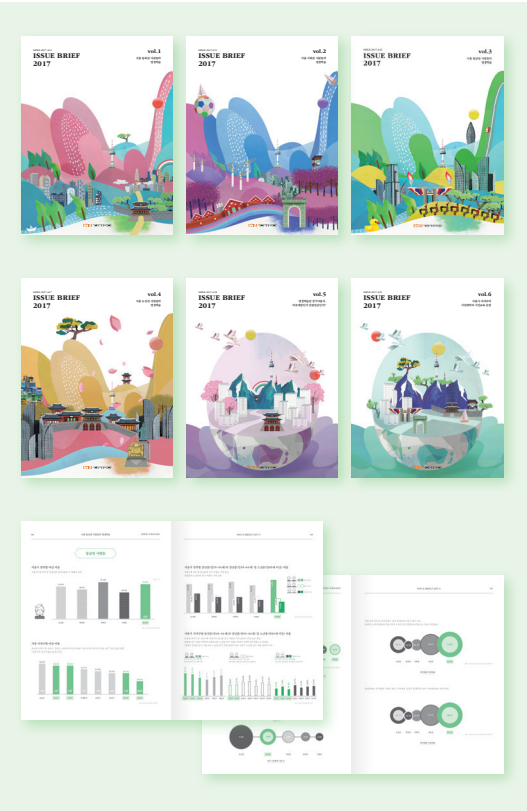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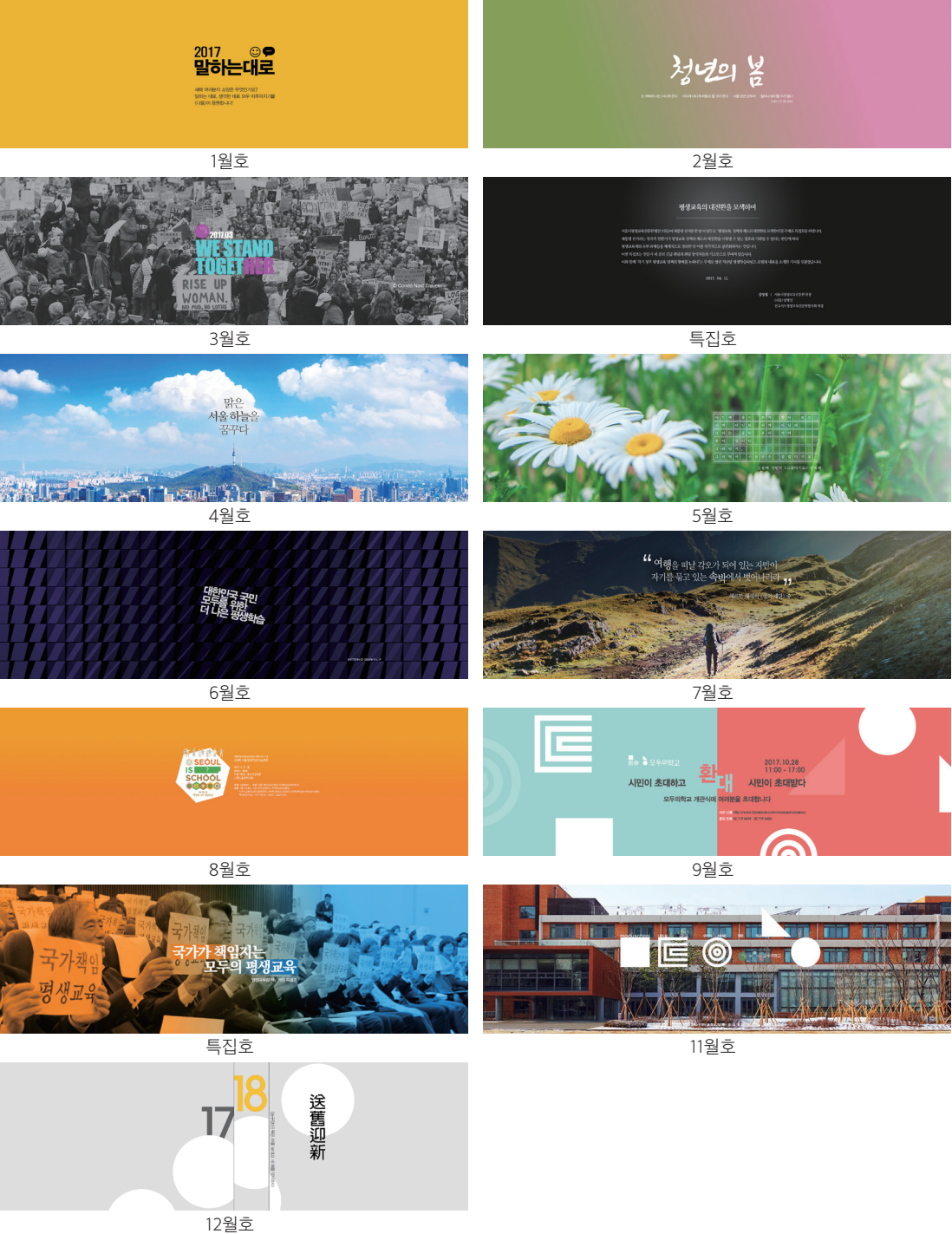


2017 <이슈브리프> Vol.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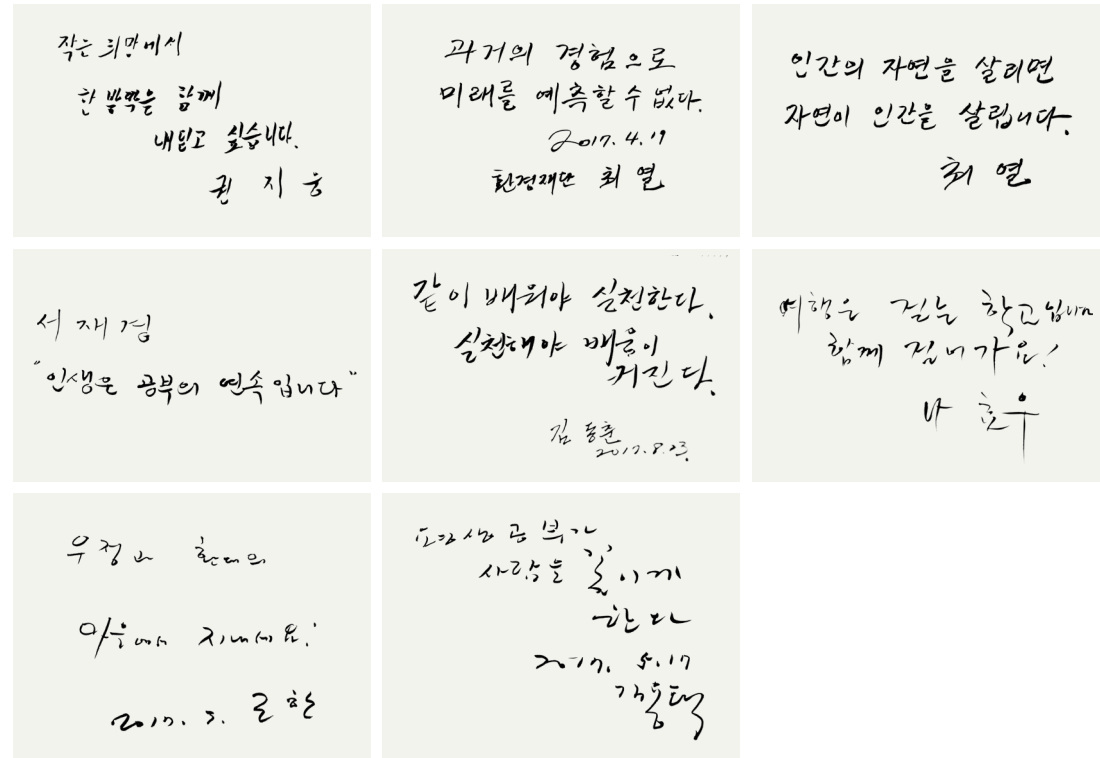
주제	비 고
서울 자치구의 시민교육과 시민대학	통계 분석형
서울 동북권 시민들의 평생학습	
서울 서북권 사람들의 평생학습	
서울 동남권 사람들의 평생학습	주제 분석형
서울시 평생학습관의 공간 구성	
평생교육 텃새 학습자 분석	



<다들>의 한 해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두 돌을 맞은 <다들>, 어떤 매체가 되어야 할 지 고민했던 한 해였습니다. 청년, 환경, 여행 등 우리 삶에 친숙한 주제와 평생학습을 엮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젠더나 빅데이터 등 조금 낯선 주제로 확장해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평생학습의 현재를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해보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늘 그랬듯, 시민기자의 꼼꼼한 취재로 발굴된 지역 소식도 <다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연말엔 <다들>의 '멘토'들이 독자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글로만 접했던 멘토들과

얼굴을 맞대고 웃음을 함께 나누니 그들의 말과 생각이 더 깊게 다가오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크지만, 그 아쉬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들>, 더 넓은 시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석구석 돌아보고 좋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 전아림 주임 / 홍보대의협력팀

<다들>과 함께한 사람들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는 평생학습계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주제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서울 전역의 평생학습 관련 활동가·실무자·연구자·시민이 함께 모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울 평생학습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히, 제2회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에는 스웨덴, 일본, 미국으로부터 온 인사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 포스터

사업 목적

평생교육계가 주목해야 할 우리사회 이슈 점검 및 발전 과제 모색

사업 대상 다양한 기관/단체 종사자, 학계, 시민 등

사업 내용

1 대토론회 기획을 위한 집행위원회 구성·운영

2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일시	2017. 9월 21일 09:00~18:00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주제	‘광장 민주주의, 담장을 넘어 일상으로’
주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과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프로그램**
- 오전: (이슈를 던지다) 국내외 시민학습 활동가의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 이슈 발표
 - 오후: (이슈를 논하다) 9개 토론방 별 시민활동가 실천의제 토론운영
- 9개의 토론영역 : 마을, 여성, 청소년, 청년, 노동자, 자원봉사, 시민대학, 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의제 논의

오전 세션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촛불 민주주의, 광장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습니다. 광장에서의 촛불 에너지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평생학습은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에브리데이 데모크라시’의 이사 브루스 말로리(Bruce Mallory)는 공동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민주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 시민교육 위원장인 커스티 졸마(Kirsti Jolma)는 일터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의 평생학습 권리를 역설했습니다. 일본 시부야 대학 시민활동가인 유리 아오키(Yuri Aoki)는 적극적 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소개 하였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별집토론에서는 마을, 여성, 청소년, 청년, 노동자, 자원봉사, 시민대학, 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9개 영역에서 논의된 주제는 ◆ 마을에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

체 시민대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82년생 김지영들 광장에 서다 ◆ 노동자, 사회권으로서 학습권을 말하다 ◆ 교복 입은 시민, 청소년 참정권을 외치다 ◆ 적극적 시민으로서 자원봉사자 성장을 말하다 ◆ 시민으로서 청년의 자리는 존재하는가 ◆ 협동조합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등 이었습니다.

각 토론방에서는 “Seoul is [] School” 슬로건의 빈칸을 시민들과 함께 채우며, <Seoul is Interactive School>, <Seoul is Living Democracy School>, <Seoul is Salim(生) School> 등 배움의 장으로서 서울을 구체화하였고, 일상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광장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벽차지만 복된 길을 펼쳐내는 데에 있어 서울평생학습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17년 대토론회는 우리 진흥원 개원 이래 최초로 개최된 국제행사였고, 또한 서울지역 내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토론과 대화의 장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과제를 도출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나영 대리 / 정책사업팀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도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고 시민 모두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서울의 평생학습을 널리 알립니다. 일상 속 평생학습을 주제로 강연자와 관객이 소통하는 <서울 평생학습 TED형 강연회>는 2017년 EBS와 함께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 원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사업을 알렸고, SNS로 시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서울은학교다 <생각하는 콘서트> 캠페인 포스터

사업 목적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대상 일반 시민

사업 내용

- ‘서울은 학교다’ TED형 강연회 개최 : 총 6회
- EBS2TV ‘생각하는 콘서트-서울은 학교다’ 방영
 - 자치구, EBS,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구분	주제	일자	장소
1차	마을, 다시 태어나다	’17. 09. 22.	제일라아트홀
2차	학교란 무엇인가?	’17. 10. 28.	모두의학교
3차	인생의 마디에서	’17. 11. 02.	중앙대학교
4차	청년으로 살다	’17. 11. 13.	동덕여자대학교
5차	모든 이가 스승이고	’17. 12. 14.	모두의학교
6차	모든 곳이 학교다	’17. 12. 21.	모두의학교

대중화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공감되는 내용’과 ‘매체의 파급력’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과 학습을 엮어 콘텐츠를 구성했고, TV와 SNS라는 시민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 곳곳에 평생 학습 문화를 만들어내고, 서울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 전아림 주임 / 홍보대의협력팀

주요 정책/사업 언론 보도



2017. 04. 17.
아시아투데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 “평생학습은 먼 길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2017. 09. 21.
뉴스스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오늘 개최... 서울 구청장 평생교육자담회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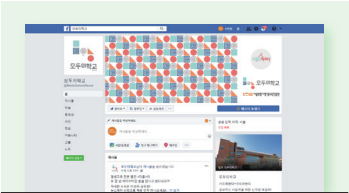


2017. 11. 08.
한겨레
“모두가 학생이자 선생님인 진짜 학교”

SNS를 통한 성과 공유 및 시민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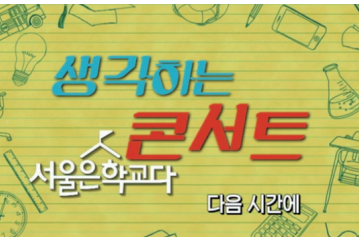
본원 페이스북



모두의학교 페이스북



본원 유튜브



EBS2TV 방송 화면(4차, 청년으로 살다)

서울 평생학습 TED형 강연회 '생각하는 콘서트-서울은 학교다' 맛보기

마을, 다시태어나다 - 김원곤 (서울대 의대 교수)	
제목	백세인생, 꽃중년 프로젝트
내용	그에게는 삶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 바로 평생 학습하는 것. 별명도 많다. '60대 몸짱 의사', '외국어 전도사' 등등 60세 직전에 식스 팩을 만들어 세미누드 사진을 찍고, 4개 외국어 시험에 도전했다. 배움을 실천하고 하나씩 이뤄낼 때마다 그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길을 가면서도 공부했고 운동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이 70세가 다 되어 가도록 김원곤 교수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인생의 마디에서 - 권기봉 (역사여행가, 작가)	
제목	여행이 가르쳐 준 인생의 기술
내용	서울의 숨겨진 역사와 일상을 기록하는 역사여행가 겸 작가 권기봉. 그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교육학과로 진학한 후 공중파의 기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런 그가 현재 '역사여행가'라는 독보적인 직업을 만들어 내기까지 어떤 선택을 해 왔는지, 그야말로 여행이 가르쳐준 인생의 기술을 전격 공개한다.
청년으로 살다 -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제목	응급실, 세상의 축소판에서 배우다
내용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음을 오가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 그에게도 한 때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었다. 의대생 시절 죽고자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준 것은 바로 글 쓰는 일. 틈이 날 때마다 글을 써 내려갔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기록을 차곡차곡 담은 책도 이미 여러 권 출판됐다.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을 잡고 생의 길로 돌아왔거나 죽음의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메디컬 에세이스트. 이 낯선 단어는 그를 대변하는 수식어다. '무간지옥'이었다는 그의 청년 시절.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 대부분이 아마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남궁인이 청년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청년으로 살다 - 장유정 (영화감독)	
제목	청년을 청년답게 하는 힘, 도전
내용	뮤지컬 배우들이 뽑은 국내 최고의 극작가 장유정. 2005년 혜성같이 등장한 장 씨는 어느새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스타 창작자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다 2008년 영화 '김종욱 찾기'에서 메가폰을 잡았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뮤지컬계도 영화계도 반응이 좋지 않았다. 등을 돌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청년이자 창작자로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도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이라고.



4

땅을 복돋우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땅의 힘이 좋아야 합니다.
양질의 콘텐츠로 발을 일구었고,
평생교육 기관 컨설팅 및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땅의 힘을 복돋았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문해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

2017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서울 평생학습원 년을 담다

“평생교육의
본질은
이론과 현장의 교감”

방통대 교수 정민승
평생교육 전문 웹진 <다들> 1월 배움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은 서울 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간 긴밀한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2016년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정례화하면서 시작되었고, 2017년에는 4회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생애주기 단계 중 '청년'층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 평생교육 영역·범위를 청년층으로 확대하고자 <서울시 청년허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자치구, 청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을 지닌 청년 활동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 함으로써 지역의 청년을 평생교육 영역으로 유입시키는 의미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평생 교육 성과공유회 '서울 평생교육의 날'을 개최 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한 서울시 평생교육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즐기는 소통·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사업 목적

서울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대상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추진체계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사업 기간 2017. 3월 ~ 12월

사업 내용

- 1 2017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4회 개최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정보 공유 및 협의회 안건 논의
- 2 민·관·학 기반 다층적 협의회 5회 개최 : 공동사업 방향 설정 및 모니터링, 평가
- 3 서울특별시 네트워크 기반 공동사업(청년층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시범 2건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결과 이미지 레코딩

사업 성과

-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개최 : 4회 개최, 99명 참석
- 2 민·관·학 다층적 협의회 개최 : 5회 개최, 45명 참석
- 3 청년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 총 10차시 프로그램 운영, 106명 참석
 - 인문고전 기반 게임학습 프로그램 <게임하는 청년 : HOMO LUDUS>, 만족도 4.32
 - 성공적인 삶과 회사생활을 위한 전환점 발견 우리들의 퇴사학교, 만족도 4.6
-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서울 평생교육의 날' 개최 : 총 140여명 참여

사업의 차별성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정례화 운영으로 추진체계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 통로 마련 및 실질적 네트워크 강화
- 민·관·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층적 협의회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공동사업 운영
- 청년층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활동 지원 기관인 "서울시청년허브"와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



매년 관계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고민하였던 부분은 공통적으로 관심있는 주제나 이슈를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2017년에는 함께 논의하고 싶은 안건을 참여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최 기관이 제시하는 일방적 주제가 아닌 참여자들의 관심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2016년 사업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지역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부분인 중장년층에서 벗어나 보다 지역 평생교육의 영역·참여자를 확대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청년층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관심 콘텐츠(퇴사), 강의가 아닌 게임 방식으로 운영해봄으로써 각각의 영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은 사업 담당자로서 기분 좋은 작은 변화들로 기억됩니다.

매년 진행되는 성과공유회의 경우에도,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와 행사 기획부터, 내용 구성, 운영까지 함께 진행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평생교육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작년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서울지역 내 수많은 평생교육기관·관계자들 간 네트워크가 더욱더 긴밀하고 돈독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는 2018년에도 계속됩니다.

◆ 이은주 대리 / 정책사업팀

2017년 서울지역 네트워크 연계형 공동사업 참여 청년 인터뷰 중 일부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서울시(공공행정)에 대하여 많이 다르게 보았다. 지루하고 구태의연한 강의, 강사의 지명도에 의존한 강의계획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공공행정도 많이 바뀌었고 건설적으로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후원을 서울시와 다른 공공자치체에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급변하는 평생교육 정책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공통 직무 과정은 집합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대상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추진 관계자 및 현장 실천가



처음으로 시도된 구청장 대상 역량강화 연수



연수를 끝낸 구청장들이 박원순 시장, 김영철 원장과 평생교육 정책 강화를 약속하는 다짐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업 내용

1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구분	분야	주제	일정	내용	참석자
❶ 최고 지도자 과정	리더십 교육	지역 평생교육 발전방안	9. 21(목)	• [주제 강연] 자치구의 발전 원동력, 시민학습력 • 구청장 평생교육 정책 좌담회	구/부구청장 소관부서 관계자
			6. 8(목), 9(금), 30(금) 3일 24시간	• 퍼실리테이터 기본기 • 미팅운영 실습	공공영역 평생교육 담당자
❷ 실무자 과정	평생 교육 직무 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11.23(목)	• [공모사업을 부탁해] • [홍보를 부탁해]	공공·민간영역 평생교육 담당자 현장실천가

2 정책사업 대상자 맞춤형 연수

구분	협력기관	대상	일정	내용
1차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협력망 및 협력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5.26(금)	• [주제 강연] 제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 • [사례 발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
2차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담당자	8. 23(수)	• [담당자 워크숍]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달인 되기 • [설명회] 2018년 교육청 평생학습관 지정기관 공모 설명회
3차	마포 평생학습관	서울평생교육봉사단, 시민강사	8. 30(수)	• [사례 발표] 서울평생교육봉사단 활동 사례 발표 • [자원봉사 마인드&소통 워크숍] 함께 걸어가며 함께 자라는 자원봉사
4차	중랑구청	관내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행복학습매니저, 동아리 임원	10.17(화)	• [워크숍] 리더십, 주체는 평생학습 실천가
5차	서초구청	관내 자치회관,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강사, 동아리 임원	10.25(수)	• [워크숍]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란

3 자기주도학습 기반의 현장실무형 온라인교재 개발 : 2종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사업 성과

- 1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개최 : 3회(151명)
- 2 정책사업 대상자 맞춤형 연수 개최 : 5회(361명)
- 3 평생교육 공동 직무에 대한 역량 습득과 이해 증진을 돕는 교육용 영상콘텐츠 개발 : 2종 (이론편, 현장사례편)



온라인 교재
(평생교육 기획하기 이론편)



온라인 교재
(평생교육 기획하기 현장사례편)

- 1) 사업편(세로골목 사업)
- 2) 강사편(평생교육 강사)
- 3) 실천가편(서울 평생교육 봉사단)



사업의 차별성

- 1 구청장 대상 평생교육 정책 좌담회 개최로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정책 기반 마련 및 현장 관심 도출
- 2 평생교육 실무자 대상 퍼실리테이터 양성 자격 과정 운영
- 3 연수가 필요한 기관의 의뢰를 받아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사업 대상자 맞춤형 연수 실시

2017년 연수 대상자 인터뷰 중 일부

“이번 연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킬을 배우고 실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교육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고 3일 과정 24시간, 알찬 구성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이수자

“현장에서 물음표로 남았던 것들이 퍼실리테이션 성장 워크숍을 통해 마침표로 전환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이수자

“관내 평생교육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제5차 정책사업 대상자 맞춤형 연수 참석자



2017년 9월 서울시-자치구의 평생교육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단위 평생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진흥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구청장 평생교육 정책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기관장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인식을 제고했으며, 좌담회가 열리기까지 서울특별시, 우리 진흥원, 자치구가 함께 협업하여 자문회의, 수차례의 업무 협의회, 사전 의견 설명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둔 것은 현장과 밀착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평행시(평생교육 관계자의 행복한 시간)’ 중점 연수과정인 한국액션러닝협회와 공동 추진한 ‘퍼실리테이

터 자격 과정’은 무엇보다도 업무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연수 종료 4개월 후에 후속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퍼실리테이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의 의뢰를 받아 찾아가는 ‘정책사업 대상자 맞춤형 연수’를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중랑구청, 서초구청 각 기관의 사업과 연계하여 연수를 공동 추진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 이아림 주임 / 정책사업팀



문해교원 역량강화 연수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

문해는 단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비문해자 '제로' 구현을 위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양질화하고, 확대하는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현장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교원 및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및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와 문해 학습자들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문해교육 보조교재

사업 목적

비문해자 '제로'인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양질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사업 대상

서울 지역 문해교육 교원, 서울 시민

사업 기간

2017.3월 ~ 12월

사업 내용

- 1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과정 운영
 - 집합교육 24시간, 현장실습 15시간 운영
- 2 문해교육 교원 보수교육
 - 문해교육기관·시설 대상 교원 및 활동가 보수교육 실시(2회)
- 3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 문해학습자의 창의·체험활동을 위한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1종)
- 4 서울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시낭송회 개최
 - 성인문해교육 인식 제고 및 문해학습자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시화전 운영 (주제 : 문해, 첫 시작을 열다)
 -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시낭송회 및 시상식 운영

사업의 차별성

1 서울특별시교육청, 문해교육 기관·시설과의 연계 강화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문해 교사의 수요를 파악하고, 문해교원들이 배치될 문해 교육 현장에 대한 자세한 현황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보수교육 시에는 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으로부터 장소를 협조받아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또한 기획 단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시화전의 테마, 시화전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중학 문해교육 교원 양성 시에는 멘토링, 현장실습, 평가회 등 연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문해교육 관련 협회, 기관·시설과 수시로 협의하였고, 실제 현장에 근무 중인 기관·시설 운영자, 문해교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예비 문해교육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2 지루한 강의식 교육은 그만! 현장의 목소리 듣는 그룹토의 도입

- 2017년 문해교육 교원 보수교육은 매번 진행하던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2일차에 문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룹토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해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보조교재 개발'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거쳐 여러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교재가 개발되었으며, 향후 문해 학습자들의 서울 궁궐에 대한 창의·체험학습을 지원할 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추억의 교실' 시화전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서울시 평생학습축제' 행사와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문해교육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대와 문해 학습자의 자존감 향상을 꾀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시화전 행사에 8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추억의 학창시절' 교복 체험을 하고, 시화전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해 학습자들은 시화전 기간 동안 '저도 이제 학생이에요'라는 당당한 말과 함께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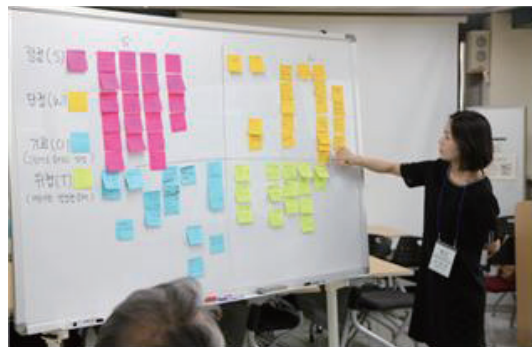
성인 문해교육 교원 **30명** 양성

- 1 **158개** 문해교육 기관 대상 문해교육 교원 및 활동가 보수교육 **159명** 참여
- 2 성인문해교육 보조교재 **1종**(서울 궁궐나들이) 개발
- 3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공모작품 중 **50작품** 선정하여 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800여** 명 참여
- 4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2편**) 시·낭송회 개최 등



중학 문해교원 연수 참여자 후기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연수였습니다. 선배 문해교사들의 경험을 나누며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강사님들도 짧은 시간에 엑기스를 모아 강의해 주셨습니다. 연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애 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성에 정성을 기울인 만큼 학습장 개설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비문해자가 줄어드는 그날까지 문해교육 정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중학 문해교원 연수자



시화전 작품 사진

5

마침내 맺은 결실

함께 농사짓고 함께 수확하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간 설계에서부터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이 참여한 모두의학교가 개관식을 하고,
혁신을 이룰 준비를 끝냈습니다.

모두의학교 운영기반 구축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모두의학교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다”

여행학교 '로드스콜라'

평생교육 전문 웹진 <다들> 7월 개음

모두의학교 전경

모두의학교 운영 기반 구축

옛 한울중학교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각종 시설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간인 만큼 공간을 사용하는 원칙과 규칙을 시민의 관점에서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7년 10월 28일, ‘시민이 초대하고 시민이 초대받는’ 모두의학교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추진 경과	'13. 08.	현장시장실 : 「모두의학교」 추진 결정	신개념의 평생학습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모두의학교」 설립 추진
	'15. 08. ~ 11.	「모두의학교」 조성,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모두의학교」 운영 자문단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기본 방침 마련
	'16. 08. ~ 09.	공간 설계를 위한 주민참여 워크숍 개최	준비회의 2회, 워크숍 6회, 결과설명회 1회 개최
	'16. 12. ~ '17. 10.	「모두의학교」 리모델링 공사	주민 설계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전면 리모델링 실시
	'17. 03. ~ 12.	「모두의학교」 소위원회 운영	「모두의학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관계자 의견 수렴 등
	'17. 10. 28.	「모두의학교」 개관식 개최	주제 : 시민이 초대하고 초대받다 「환대」
	'17. 11. ~ 12.	「모두의학교」 시범 운영	주민참여 인테리어 추진, 시민학교 스타트업 시범 사업

사업 내용

- 1 모두의학교 시민참여형 학습공간 조성
- 주민 요구를 반영한 인테리어 추진·공간 구성

인테리어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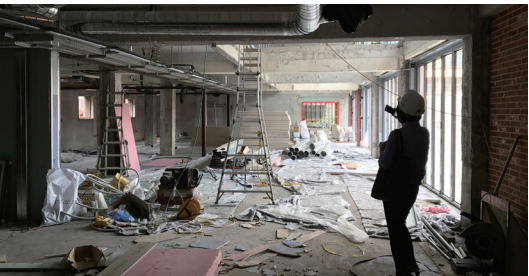


1층 로비



3층 교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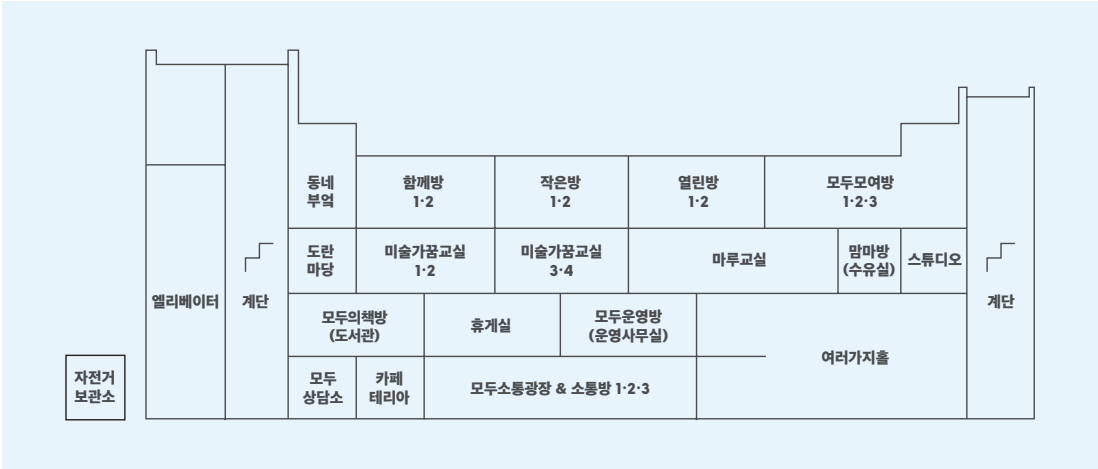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모두의학교 운영 기반 구축

모두의학교 공간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모두의학교 운영 기반 구축

모두의 공간건축학교 공간탐험대 1기



2 모두의학교 기관 운영 기반 마련

- 모두의학교 소위원회 운영 : 모두의학교 운영 계획 및 방향 자문, 실험과제 도출 등
- 모두의학교 마스터 프로세스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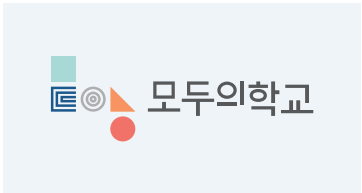
모두의학교 마스터프로세스		
파트1	학교의 재탄생	한울중학교에서 모두의학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추진배경 및 성과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개요
파트2	학교의 도전	평생학습 딜레마와 마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슈1 핵심 타겟 설정이슈 2 핵심 참여자 그룹의 성장 지원이슈 3 학습 환경 조성이슈 4 요구조사 및 피드백 체계 구축이슈 5 학습 활동과 내용 구성이슈 6 학습 단계 설정이슈 7 지역사회 자원 연계이슈 8 운영 조직 문화와 규칙 설정
파트3	학교의 꿈	새로배움터X서로배움터=모두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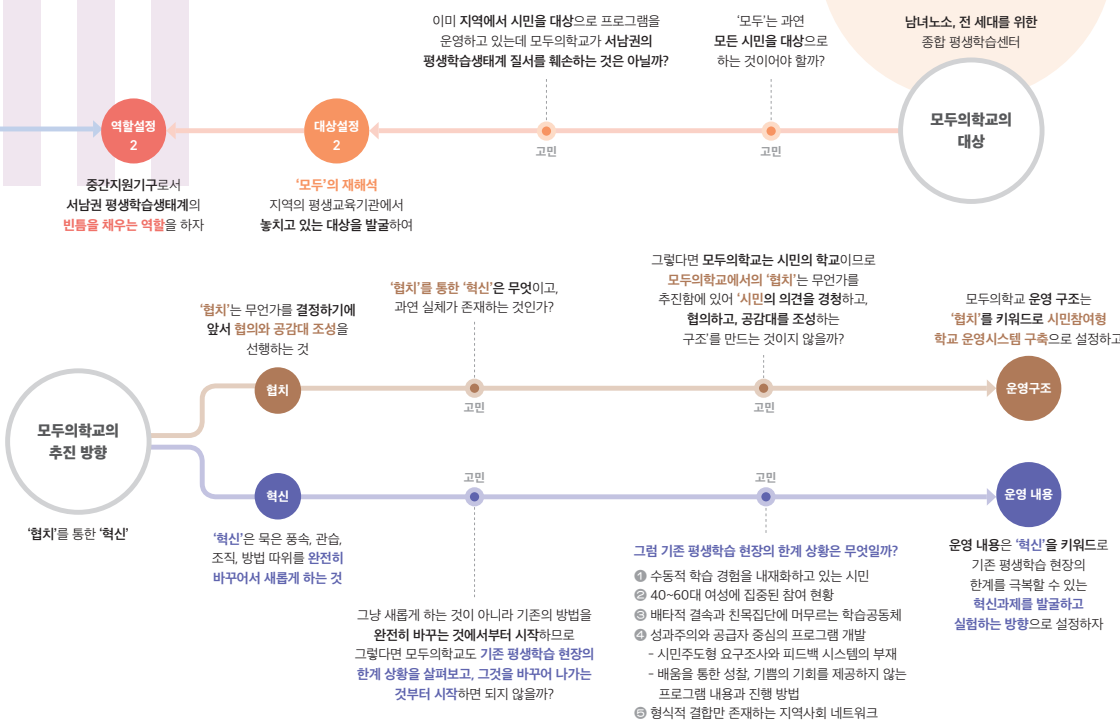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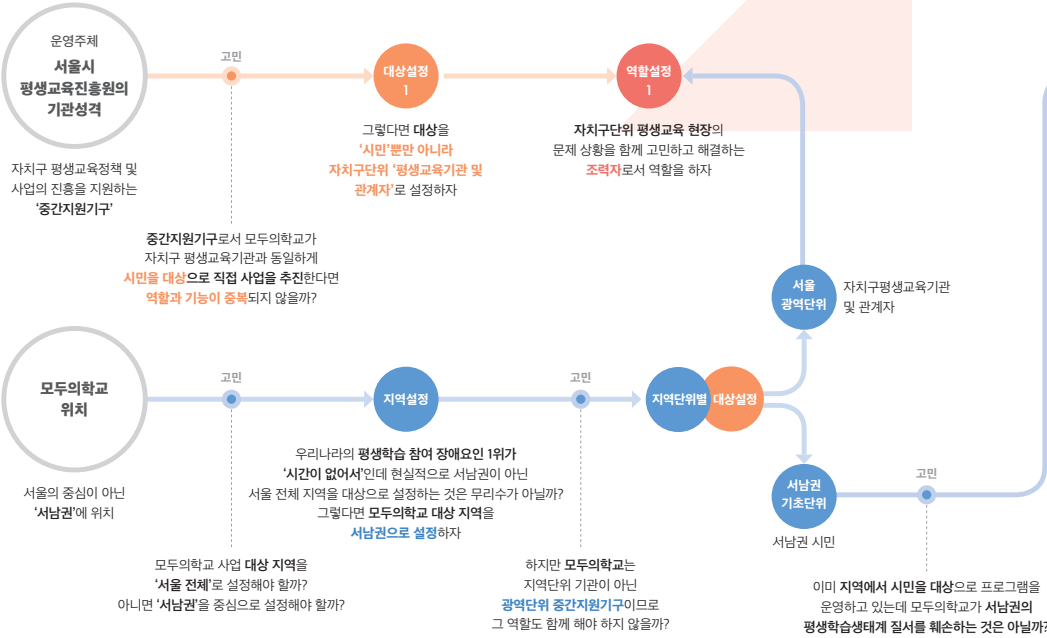
모두의학교 마스터 프로세스

3 모두의학교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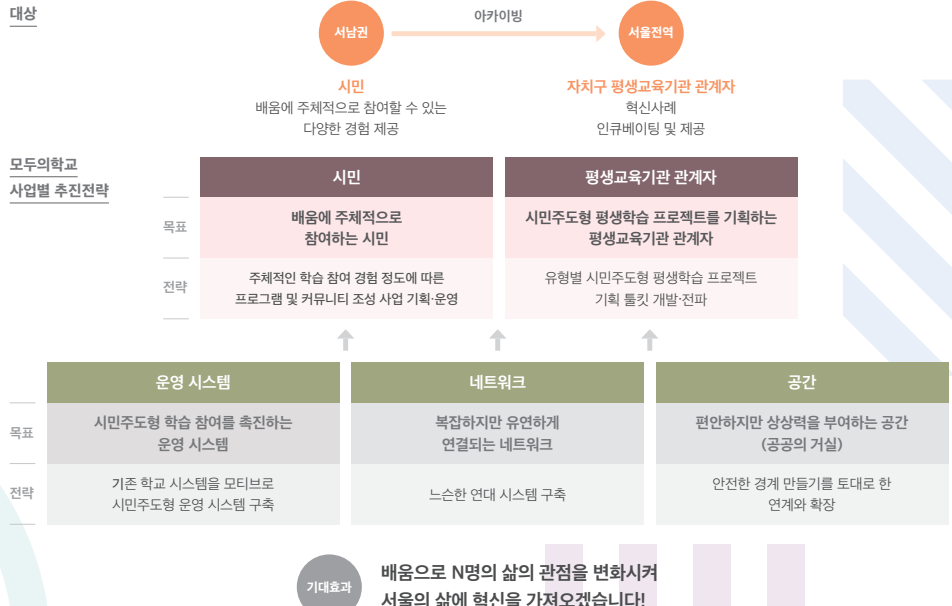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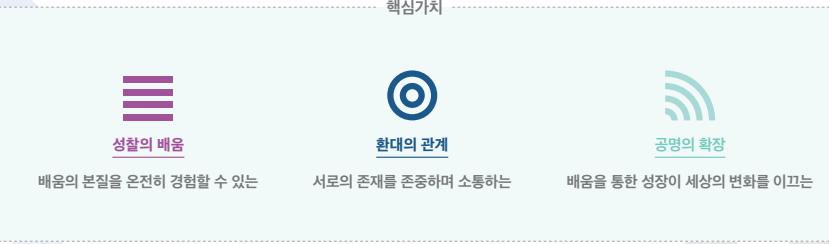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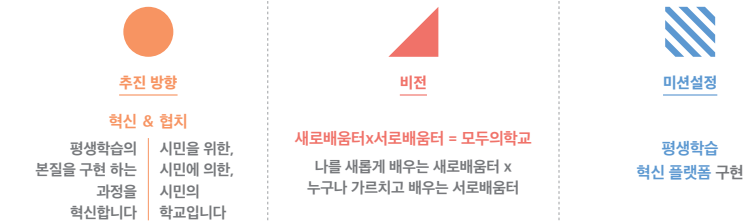
- 모두의학교 아이덴티티 제작
모두의학교 심볼은 한글 자소의 자음을 도형화해, 경계 없는 교육을 기획·운영하고 참여하는 모두의학교의 지향점을 표현하였습니다. 한글 자소가 갖는 조형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컬러 대비를 통해 세대의 아우름을 시각화하였습니다.
- 모두의학교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리플릿, 에코백, 머그컵, 캘린더, 파우치, 캠페인버튼 등



모두의학교 정체성 탐색 지도



모두의학교 비전체계도



모두의학교 운영 기반 구축

모두의학교 운영 기반 구축

- 모두의학교 홍보동영상 제작 :
'이런 학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각기 다른 시민이 꿈꾸는 새로운 학교에 대한
상상을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으로 표현



- 모두의학교 온라인 플랫폼 구축 :
<http://smile.seoul.kr/moduschool>
<http://www.facebook.com/moduschoolseoul>



- 모두의학교 언론보도



신문광고



2017. 10. 23.
내 손안에 서울
평생배움 '모두의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2017. 10. 23.
연합뉴스
내가 원하는 분야 찾아
공부...서울 독산동에
시민학교 연다



2017. 10. 25.
동아일보
'모두의학교'
28일 금천구에 등지

4 모두의학교 개관식 개최 : '17. 10. 28.

- '시민이 초대하고 초대받다 「한대」를 주제로 개관식 준비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로 진행
- 800여 명의 시민 참여
- 개관식 진행을 위한 시민자원활동가 '모두아띠' 58명 모집 : 모두배움시장, 축하공연, 개관행사 사회, 개관행사 안내 및 지원 분야 활동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전 행사 11:00~14:00	모두 배움 시장 (배움을 나누다! 스터디 플리마켓)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시민운동의 하나인 플리마켓(벼룩시장)을 모티브로 하여 개관식에서는 물건 대신 '배움'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응용하여 진행
개관 행사 14:00~15:00	진행 : 자원활동가 '모두아띠'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의학교 영상 상영 학교의 재탄생 : 한울중학교에서 모두의학교로 모두의학교의 다짐 모두아띠밴드 공연 (with 사이) 파트너 소개 (내빈 소개)
토크콘서트 15:00~16:00	학교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한 진짜 학교 (진행 : 손미나 인생학교 서울 교장)	<p>'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 우리가 경험한 학교를 돌아보며 삶에서 왜 배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존재와 삶을 위한 '모두의학교의 배움'의 조건을 다양한 세대의 시민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p>

2016년 뜨거웠던 여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설계안을 막상 현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니 참 막막했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설계부터 공사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이 공간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과연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건 '모두'의 힘입니다. 술한 밤을 함께 지새우며 서로를 보듬었던 동료들, 사려 깊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도움 주신 많

은 분들, 그리고 워크숍부터 개관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이 공간을 진짜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낸 시민 덕분에 모두의학교가 태어났습니다. 창틀, 바닥 타일, 나무 한 그루까지 무엇 하나 시민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바로 여러분이 보람입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멋지게 채워나갈 모두의 배움이 기대됩니다.

◆ 전아림 주임 / 홍보대외협력팀

모두의학교 개관식

“초대하고 초대받으니
‘진짜학교’ 맞더라”

‘모두아띠’가 나누는
개관식 이야기

‘시민이 초대하고 초대받다’라는
모두의학교 개관식 슬로건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개관식에 ‘초대하고 초대받은’ 시민 네 분을 만나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개관식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드립니다.
(평생학습 전문 웹진 <다들> 25호에서 발췌)



모두의학교 개관식 포스터



모두의학교 : 안녕하세요. 개관식 이후로 잘 지내셨나요? 지난 10월 28일에 있었던 모두의학교 개관식은 ‘시민이 초대하고 초대받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기에 많은 곳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모두아띠’로 활동하신 여러분들 덕분에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시민들이 어떻게 모여서 개관식을 함께 준비하고, 꾸려낼 수 있었는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각자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정숙 :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구연가인 정정숙입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사회자를 맡았어요. 작년부터

모두의학교에 쪽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민참여워크숍 등 준비 과정부터 시민과 함께 해 온 모두의학교가 개관식 사회자도 시민에게 맡긴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가 힘은 잘 못 쓸 것 같구, 하던 일이 있으니 사회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인환 :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 사는 조인환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 거문고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묘제례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종묘의 본전과 영녕전 제향 때 쓰이는 음악으로 무형문화재 제1호입니다. 제가 그 음악의 연주자예요. 연주 일정이 없는 날이면 자원봉사를 즐겨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의학교 개관식 소식을 접했어요. 이번

자원봉사에서는 주로 몸 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김선정 : 저는 독산3동에 사는 김선정입니다.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이 지역에서 직거래장터, 교육 사업, 동아리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모두의학교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쪽 관심을 가져, 작년 주민참여워크숍에도 참여해 의견을 냈었어요. 개관식에선 협동조합과 함께 ‘씨앗으로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구요.

류예린 : 사회를 맡았던 류예린입니다. 엄마가 “예린아, 사회 한 번 해 보는 거 어때?”하고 권했어요. 음... 그냥 알겠대구 했어요. (일동 웃음) 학원 다녀

와서 대본 연습하는 게 힘들긴 했는데, 막상 무대 올라가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날 사람들이 자꾸 안 떨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꼭 떨려야 하나요? 저는 하나도 안 떨리던 걸요!

신성희 : 이전부터 한울중학교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대체 뭐가 들어올지 정말 궁금했어요. 공원이자, 도서관이다, 말도 많았죠. 그래서 저도 주민참여워크숍 참여하게 되었고, 주민이 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처음하게 됐어요. 다양한 의견이 많아 혹여나 싸움이 나지 않을까 혼자 노심초사하기도 했지만요.(웃음) 저는 배움시장에 참여했어요. 제가 요새

배워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곳 모두의학교에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모두의학교 : 배움시장을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신성희 : 저는 그림책으로 감성코칭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표현이 서툴러 티격태격했던 어떤 노부부가 생각나네요. 결국에 그분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가셨어요.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지 진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또, 어떤 아이가 동생이 생긴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 듣게 된 엄마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다함께 어울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정정숙 : 아휴... 저는 사회를 보다가, 시장님이 오셨을 때, 모두의학교 지원 좀 당부드린다 얘기를 하는데, 글썄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타는 바람에 지원을 '디원'이라고 해버렸지 뭐야. (일동 웃음) 제가 모두의학교를 위해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애드립으로 한 건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바로 애교있게 정정

했지요. "지원입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회자 역할 하면서 큰 에피소드가 남았네요.

신성희 : 처음인건 맞지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죠. 그날 정말 잘 하셨어요. 앞으로 또 사회 보실 기회가 분명 또 올 거예요.

조인환 : 저는 사실 바빠서 개관식 전에 있었던 모두아띠 사전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사전모임에서 행사 당일 역할 분장을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서, 개관식 당일에는 양복을 차려입고 왔어요.

모두의학교 : 인환님은 모두의학교 스태프들이 꼭 따로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개관식에 의자를 날라야 할 일이 많았는데, 스태프들이 거의 여자이다보니 힘들어 하는 와중에 정장을 갖춰 입은 남성분께서 갑자기 의자를 한꺼번에 날라주셔서 다들 "저 사람 누구야"하고 웅성웅성.(웃음)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개관식 배움시장 <씨앗으로 액자만들기 프로그램>



개관식 사회를 맡은 모두아띠 정정숙님



개관식 사회를 맡은 모두아띠 류예린님, 배움시장 운영을 맡은 신성희님(왼쪽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홍보 '부족' 메워야

조인환 : 평소에도 자원봉사를 자주 해요. 저라는 사람이 힘이 된다면,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디라도 갑니다. 개관식 슬로건이 '시민이 초대하고 초대받는'이었잖아요. 초대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옷도 잘 갖춰입고 갔어요. (웃음)

김선정 : 초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주인의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리모델링 과정 등 처음

부터 참여한 분들은 남다른 마음으로 모두의학교를 지켜봤겠지만... 건물을 지척에 두고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죠. 하물며 이 근처도 그런데 서울 전역에선 어떻겠어요. 조금 더 홍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사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지역사회에 소문 나면 결국은 서울 전체에 퍼지지 않을까요?

모두의학교 : 선정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어요. 모두의학교는 앞으로도 꼭 시민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주인인 학교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관식 날 여러분 앞에서 <모두의학교 다짐>을 발표하

기도 했었지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이곳의 주인인 시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다짐을 한말씀씩 해주세요.

내 평생 '또 하나의 내 집' 이제껏 없던 일 벌어질 것 예감

조인환 : 개관식에서 맺은 인연으로, 앞으로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라는 사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을 적극 활용할거예요.

정정숙 : 저도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제가 가진 자산을 맘껏 나누고 싶어요. 개관식을 제가 직접 치러낸 경험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 즐거움을 이곳에서 다시 나눌 거예요. 앞으로 모두의학교는 내 평생에 내 집처럼 느껴질 것 같네요. 우리 예린이는 모두의학교에서 뭘 하고 싶니?

류예린 : 모두의학교에서 놀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3층에서 맘껏 뛰놀래요.

신성희 : 저도 집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책을 읽다가 쉴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집이요. 이번 '시민학교 스타트업' 시범 프로그램에 업사이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주제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이번에 참여했어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바느질하고 옷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내심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나중에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어요.

◆ 전아림 주임 / 홍보대외협력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형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모두의학교는 다릅니다. 그 시작부터 특별했기 때문에 학교를 채워가는 과정과 콘텐츠 또한 남달랐습니다.

모두의학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3가지 프로그램 모델(① 융합 혁신 모델, ② 방법론 혁신 모델, ③ 스타트업 지원 모델)을 개발·운영 하였습니다. 융합 혁신과 방법론 혁신 모델은 모두의학교가 광역 단위 중간 지원기구로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학교 스타트업 모델은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개발은 진행되었고,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 및 한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의학교 프로그램 개발의 지향점을 찾고,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기존 평생교육 사업 현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모델의 연구 개발을 통해 서울형 평생 학습 혁신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사업 대상 시민

사업 기간 2017.7월 ~ 12월





사업 내용

1 [융합 혁신 모델] 모두의양상블 프로젝트

- 내용 : ‘따로 또 같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주체와 융합을 통해 주제 중심(theme based) 프로그램 개발·제공
- 방법 : 모두의학교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 강연, 전시, 예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

2017년 주제: 학교란 무엇인가? 당신을 위한 진짜 학교

회차	대상	협업 기관	일시	인원	세부 내용	진행 방법
1	청소년	오디세이학교	9월 14일 15:30 (100분)	14명	(제1부) 오디세이학교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디세이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일반학교와 오디세이 학교의 같은 점과 다른점• 오디세이를 키워드로 표현해 보기 (제2부) 우리가 바라는 학교상	토론 및 발표
2	청년	아름다운 서당	9월 30일 15:30 (90분)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대학생활에서 아쉬웠던 점은?• 대학에서 진짜 무엇을 배워야 하나?• 아름다운 서당에 지원한 이유?• 대학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토론 및 발표
3	성인(30대)	인생학교 서울	9월 15일 19:30 (90분)	33명	인생에도 학교가 필요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학교 설립 취지 및 철학• 인생학교 주요 프로젝트들• 인생학교를 찾은 이유와 각자의 고민 토크• 인생학교에 바라는 점 토크 / Q&A	키노트 및 자유 토크
4	중장년 (4~50대)	수유너머104	9월 30일 19:00 (120분)	7명	인문학 공부, 그것을 왜 하려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 우리의 삶에 대한 물음• 인문학 :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공부	토론 및 발표
5	노인	금천 할머니학교	9월 1일 10:00 (120분)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느끼는 할머니학교의 정의?• 할머니학교에서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은?• 할머니학교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토론 및 발표

2 [방법론 혁신 모델] 플랫폼형 프로그램 개발·전파

- 내용 : ‘행동을 통한 배움’, ‘변화를 만드는 배움’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기획해볼 수 있는 툴킷(도구)과 툴킷 활용 및 확산을 위한 플랫폼형 프로그램 개발
 - ※ 플랫폼형 프로그램 : 사회혁신을 가져오는 새로운 포맷의 평생학습 방법론이 실험되고 확산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장(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 방법 : 다양한 형태의 학습모델과 방법을 적용, 7단계로 연결되는 구조로 고도화 (프로그램 연구: 6~8월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9월 → 성과 측정 및 프로그램 개선: 10월)



단계	툴킷명	툴킷 역할	툴킷 형태	비고
1	프로그램 목적 확인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려 하는지 되짚어보는 단계	선택형 카드	'18년 개발 예정
2	프로그램 대상 구체화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예상 참여자를 찾아보고 구체화하는 단계	선택형 카드	
3	프로그램 관점(가정) 설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주체로서 어떤 관점(가정)을 지향할지 결정하는 단계	선택형 카드, 워크시트	
4	프로그램 콘텐츠 도출	다양한 교육 수단을 제시하여 시야를 넓히고, 기존의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탈피하는 단계	선택형 카드	
5	프로그램 방법론 설정	도출한 교육수단에 맞는 방법론 및 교수법을 구상하는 단계	선택형 카드	'17년 개발
6	프로그램 커리큘럼 작성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목표를 관점과 가치 중심으로 설계하는 단계	워크시트	
7	프로그램 평가방식 수립	(2019년 개발 예정)		

3 [시민학교 스타트업 모델]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 사업

- 내용 : 시민이 평생학습의 수혜자에서 프로그램 개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학교 콘텐츠를 기획·제작·실행 할 수 있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 시민학교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3인 이상 구성된 팀 단위로 지원 가능)

• 지원 내역

- ①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② 프로그램 개발 과정 멘토링(3회) : 선정학교별 특성에 맞는 전문 멘토를 매칭하여 프로그램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멘토링 실시
- ③ 시범 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학교

구분	학교명	툴킷 역할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개발)	모두의흙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여러 세대• 내용 : 인테리어를 통해 가족 간의 단절된 소통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거주공간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마을지도로 고령노인 지키기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청소년• 내용 : 독거 어르신들의 상태를 마을 지도 작성하여 고령화가 품고 있는 문제를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세대성장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학습'으로 서남권 지역 문제를 해결 하는 프로그램 개발)	1924금청년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후기 청소년(19~24세)• 내용 : 후기청소년들의 자아재정립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학교
	아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우울증 위험 노출 여성• 내용 : 폐가구 등의 리폼을 통해 자신의 삶도 리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학교
	업사이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시민 누구나(옷이 작아서, 유행이 지나서 의류를 버리는 사람)• 내용 : 버리는 옷을 새롭게 바라보고 버리는 것보다는 다시 쓰기 운동을 통해 자원에 대해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학교
	은빛까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시민 누구나• 내용 : 어르신의 시선으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다른 세대들에게 인생경험을 나누는 학교
	FUNFUN 상호문화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비 다문화가정 아동• 내용 :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 간에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 및 문화 평등성을 인식하게 하는 문화활동학교
	마을목공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중장년 시민• 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공부방을 꾸밀 수 있도록 하여 세대 간의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모두의학교에 주어진 미션은 협치를 통한 혁신이었습니다. 협치도 힘든데 혁신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관련 사례도 찾아보고, 전문 서적도 찾아보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해봤지만 속 시원한 답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할까요? 답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2016년 이미 확정된 모두의학교의 설계 도면을 시민들과 워크숍을 통해 바꾸었던 일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실제로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협치를 통한 혁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모두의학교 프로그램 개발도

출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구조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의 구조로, 개발 내용은 기존 평생학습 현장의 한계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혁신의 내용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향성은 명쾌해졌으나 ‘어떻게’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모두의학교가 협치를 통한 혁신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풀어나갈지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 임지희 주임 / 모두의학교팀

2018 SMIL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거대한 도시 서울을 위대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서울 시민, 평생학습 기관 및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의 미래를 그린다.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합니다.

- 서울시 평생교육 혁신정책 개발 및 평생학습지수 모니터링
- 참여형 시민학습 아카이브 구축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2 서울특별시 평생학습을 일상에서 누린다.

서울 시민 한분 한분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곳곳에 배움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3 서울특별시 평생학습의 감동을 전하다.

서울 시민에게 평생학습 소식을 전하고, 서울 시민과 평생학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4 서울특별시 평생학습을 이끈다.

평생교육기관 및 관계자들과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
-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5 서울특별시 평생학습을 혁신한다.

서울 시민과 함께 나를 새롭게 배우는 새로배움터,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서로배움터를 만들어 나갑니다.

- 모두의학교 운영 체제 구축
-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전파
- 모두의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6 서울특별시 평생학습에 깊이를 더하다.

서울 시민의 높아진 배움 성취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대학이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더 크게 발돋움 합니다.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 확대 운영
- 시민대학만의 체계화된 인문교양교육 '시민학위제' 도입
- 시민학습공동체 지원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 및 특강 운영

7 서울특별시 평생학습 청춘을 물들인다.

청년들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다양한 사유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인생 전환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합니다.

- 사유와 경험을 위한 배움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 또래집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내가 만들어가는 '서울형 갭이어' 캠페인 전개



서울은 학교다

도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배우는 도시
삶과 배움의 경계가 없는 도시 -
서울은 학교입니다.



모두의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네배움터



2017 연차보고서

평생학습 서울함

서울 평생학습 일 년을 담다

발행일	2018. 08.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편집인	홍보·대외협력팀장 황미연 홍보·대외협력팀 김혜연
디자인	그래픽 피엘에프(GRAFIK P·L·F)

주소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	02-719-6093
팩스	02-6730-7166
홈페이지	http://smile.seoul.kr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